

---

碩士學位論文

道德的 價值判斷力 伸張을 위한  
道德科에서의 新聞活用教育 方案

-初等學校 六學年을 中心으로-

指導教授 梁 邦 柱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金 光 來

1998年 8月

道德的 價值判斷力 伸張을 위한  
道德科에서의 新聞活用教育 方案

-初等學校 六學年을 中心으로-

指導教授 梁 邦 柱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金 光 來



金光來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도덕적 가치판단력 신장을 위한 도덕과에서의 신문활용교육 방안  
-초등학교 육학년 을 중심으로-

김 광 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

지도교수 양 방 주

도덕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에게 도덕적 가치판단력을 향상시켜주고 건전한 도덕성을 함양시켜줌으로써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올바르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요즘 강조되고 있는 열린 교육의 방향에 보조를 맞춰 도덕과 학습지도의 개선 방안으로 도덕적 가치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주체적으로 자각하게 하여 도덕적 사고력 및 판단력을 신장시켜 주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도덕성이 풍부하게 키워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신문기사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도덕과 교육의 특성과 가치판단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관련문헌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그리고는 신문을 교육적으로 이해하고 신문이 갖는 교육적 기능을 통하여 신문활용교육의 의미와 그 중요성 및 실태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알아보았다. 특히 도덕과에서 신문활용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매일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 각종의 기사는 아직 미성숙 단계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가치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떤 것은 버려야 할 것인지를 사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가치판단력을 신장된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육학년 도덕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단원별, 영역별 지도요소를 추출하고, 학습지도시 그 차시에 알맞은 신문기사의 방향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신문에서 필요한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된 기사는 도덕과 교수-학습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선정기준과 정해진 과정에 따라 교재화하여 도덕적 문제사태 제시 단계에서 동기유발자료 및 전개 단계의 논의 활동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또 논의 활동 중심의 학습이 되도록 교사를 위한 발문요령과 학생들을 위한 발표요령을 예시하였으며, 신문기사 자료를 실제로 활용한 교수-학습지도안을 구안하였다.

\* 본 논문은 199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 目 次

I. 序 論 .....	1
1. 問題의 提起 .....	1
2. 研究의 目的과 方法 .....	3
II. 道德科 教育의 特性과 價値判斷力의 重要性 .....	7
1. 道德科 教育의 特性 .....	7
2. 道德科 教育의 課題 .....	10
3. 道德的 價値判斷力의 重要性 .....	11
III. 新聞의 教育的 機能과 新聞活用教育 .....	21
1. 新聞의 教育的 理解 .....	21
2. 新聞活用教育의 意義와 道德科에서의 效用性 .....	30
3. 新聞活用教育의 前提 條件 .....	38
4. 新聞 活用 教育의 實態 .....	44
IV. 道德的 價値判斷力 伸張을 위한 道德科 學習指導에서의 新聞資料 活用 .....	51
1. 道德科 指導要素에 따른 新聞記事 選擇 .....	51
2. 餘裕時間活用을 통한 新聞資料의 教材化 .....	57
3. 道德科 新聞資料活用 授業의 一般模型 .....	66
4. 道德科 學習指導의 實際 .....	69
V. 結 論 .....	79
參 考 文 獻 .....	83
Abstract .....	86

## 標 目 次

〈表 1〉 基本的인 發問 모델 .....	40
〈表 2〉 論議學習을 위한 發表 訓練案 .....	42
〈表 3〉 生活 領域別 學年 目標 및 指導 要素 .....	51
〈表 4〉 單元別 指導內容과 必要한 新聞 資料의 內容 .....	53
〈표 5〉 新聞資料의 選定 方法에 따른 節次와 長短點 .....	60
〈表 6〉 新聞 探究 課題 .....	63
〈표 7〉 新聞記事 쓰기 樣式 .....	65



# I. 序 論

## 1. 問題의 提起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經濟 發展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꾸준히 힘써 왔다.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 努力하다 보니 우리 사회는 급속한 産業化·工業化에 의해 經濟的·物質的 大變革을 겪게 되었다. 그러는 過程에 民主的 價値나 人權伸張, 經濟的 均衡發展 등은 뒷전으로 처진 채, '하면 된다'는 便法主義와 結果優先主義, 物質萬能主義, 그리고 부정부패가 한국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그 결과 傳統的으로 존재해온 價値體制는 약화 내지 붕괴되어 가고 있는 반면, 새로운 현대적 가치 체제는 형성되지 못하여 가치의 混亂狀態에서 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생태적 조건은 가치혼란을 초래하여 도덕적 가치판단력 신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高度로 産業化되어 가는 과정에서 傳統의 固守와 改革에 있어서 價値選擇의 問題뿐만 아니라 價値判斷에서 混亂한 社會的 欲求를 充足시키고 適應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사회의 構造的 複雜性和 高度의 可變性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現社會에서 부딪히는 價値混亂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多樣한 變化에 對處할 수 있는 價値判斷力 伸張을 위한 信念體制가 要求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변화하는 사회에 부합되는 價値觀을 형성하지 못하고 價値選擇에 있어서 더욱 더 葛藤을 겪고 나아가 온갖 非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多樣한 價値觀이 混在하는 狀況 속에서 제대로 適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價値觀을 가지고 確固한 道德的 價値判斷力을 涵養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役割을 교육이, 특히 道德教育을 통하여 담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道德教育은 학생들에게 장차 한 사람의 社會的 存在로서 자신의 생활을 奮爲하는데 필요한 規範의 選擇과 價値의 判別에 익숙하게 하고 이에 따른 價値判斷의 능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道德教育은 人間教育과 같은 입장에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교육의 가장 中心的 課題가 되고 있다. 이는 교육의 목적이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變化에 있기에 교육에서 도덕교육의 重

要性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어느 時代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教育的 召命이기에 교육의 목표나 내용도 여기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어 행해져야 함은 當然하다.<sup>1)</sup>

이처럼 교육의 궁극적인 目的은 올바른 人格과 品性을 지닌 道德的인 人間을 기르는 일인 동시에 社會 構成員들이 自己主導的인 生存力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그러므로 教育은 學生들로 하여금 올바른 價値觀을 기르도록 도와 주어서, 그에 따라 주어진 狀況에 올바르게 判斷하여 行動하는 習慣을 形成시켜 주는데 最善의 努力을 다해야 한다. 특히 靑少年 教育을 주로 擔當하고 있는 학교는 자라나는 靑少年들에게 社會生活의 基礎가 되는 올바른 價値觀을 심어주어 共同體的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막중한 責任을 지니고 있다. 未來 社會를 責任질 靑少年들에게 道德的 價値判斷力을 伸張시켜 주면서, 올바른 價値觀을 심어 주는 것은 個人的으로나, 社會的, 國家的으로 교육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義務인 것이다. 그러므로 道德教育은 自律的 判斷의 能力을 가지고 主體的으로 價値決定을 행하면서 社會의 統合에 寄與할 수 있도록 圓滿한 人格을 形成하는데 基本이 되는 能力과 態度를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知識과 技術 爲主의 學校教育 風土는 道德 教育의 重要性을 등한시 하게 되었고 現實의 도덕 교육에 있어서도 急變하는 사회에서 바람직한 價値를 스스로 선택하여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열린 교육의 추진과 함께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으나, 과거부터 이어져온 注入·暗記式 教授-學習은 학습자에게 結論으로서의 지식이나 가치만을 강조한다. 지식의 生成 過程, 價値의 形成 過程이 무시된 채, 교사 위주의 便宜主義的이고 強壓的인 방법에 의해서 學習者가 注入·教化되어<sup>2)</sup> 지식이나 가치 탐구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면서 偏狹된 사고 및 가치·태도가 형성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에 의한 목표달성보다는 盲目的으로 목표나 결과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 최근 이들의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많은 問題點이 지적되고 있다.

1) 박익종(1991), "도덕적 가치판단력 신장의 교육", 「교육 전남」, 제79호, 전라남도 교육청, p. 67.

2) 민영방(1992), "자료의 수집·해석기능이 사회적 지식획득 및 가치명료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 3.

그러므로 교육적 가치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教育施惠者'인 교사 중심에서 시행되어온 교육의 체제가 앞으로는 '教育受惠者'인 학습자 중심으로 轉換되어 自律的인 價値選擇의 폭이 확대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의 연구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도덕교육은 성장과정의 세대들로 하여금 보다 더 의미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追求하면서 건전한 自我意識을 소유하고 가치기준을 획득하게 하는 도덕적 가치판단력의 伸張을 위한 교육으로 推進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方法의 하나로 道德科 教授-學習에 多樣하고 妥當한 學習資料의 活用은 多樣한 價値들을 비판하고 올바르게 選擇하게 하는 기회를 提供한다는 점에서 도덕과 授業의 質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代案이 된다. 따라서 본 研究는 道德科 學習指導에 新聞資料를 活用하여 興味있게 自己主導的 學習을 하도록 수업을 展開함으로써 학생들에게 窮極的으로 道德的 價値判斷力을 伸張시키는 方案을 摸索해보고자 한다.

## 2. 研究의 目的과 方法

### 1) 研究의 目的

한 사회가 維持, 發展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도덕 생활의 根幹이 되는 價値 體系를 內面化 시켜 共同體의인 삶의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직면한 문제에 바람직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는 공교육 체제 전반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sup>3)</sup> 따라서 대표적인 공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共通的으로 追求하는 理想과 價値를 자라나는 靑少年 世代들에게 傳授시키는 일을 담당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본 연구의 목적도 도덕 교육의 성공없이는 한 사회가 유지, 발전될 수 없다고 보아 도덕적 가치판단능력의 신장에 두고 있다. 앞에서 言及했듯이 價値觀 및 態度的 變化와 價値判斷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價値判斷能力을 길러주는 교육은 종래의 訓話나 說得과 같은 일반적인 교육 방법을 탈피하여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生動感있고 現實

3) 교육부(1977),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6」, 한국교육개발원, p. 8.



性 있는 社會的 問題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분석하고 논의해 봄으로써 올바른 價値를 선택하게 하는 生活教育 形態의 학습 지도 방법이 要請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신문을 教育媒體로 활용하면 興味가 誘發되면서 自己主導的 學習 能力을 키워주는데도 매우 效果가 높기 때문에 道德科에서 新聞의 教育的 活用方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일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각종 매스컴이 발달한 요즘은 매일 매일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 각종의 기사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價値 形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未成熟 段階에 있기 때문에 각종의 기사를 접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社會的인 건 反社會的인 건 간에 기사 내용을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模倣할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문에 보도 되고 있는 기사의 내용을 分析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것을 그들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떠한 것을 버려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論議하고 思考할 수 있는 機會가 그들에게 요구된다. 그리고 그 機會의 提供은 教育을 주로 擔當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학습의 한 形態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sup>고 할 수 있다.

흔히 보면 요즘의 初等學生들은 수많은 學習紙와 여러 가지 학원 수강, 심지어는 과외 공부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아침 자율학습 시간마저 知識爲主의 학과 공부를 하라고 하면 매우 싫어한다. 이 때 신문을 보게 하면 훨씬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다. 사실 요즘처럼 점점 메말라가기만 하는 세상에서 發生되는 갖가지의 事件事故 消息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이와 같은 세대에 맞춰 人性教育을 強調하는 마당에 신문의 온갖 사건사고 소식과 학생들의 만남은 매우 有用한 만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잘 활용한다면 유용한 만남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나쁜 본보기가 되어 화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教育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덕과 교수-학습에 多樣하고 妥當한 學習資料의 활용은 物質萬能主義에 따른 價値秩序의 混亂으로 표현될 수 있는 現代社會에서 도덕과 教育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적절한 代案이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學習意慾과 興味를 誘發

---

4) 양선석(1996). "언론매체의 기사를 활용한 가치관교육". 『도덕윤리와 교육』, 제 7호, 한국도덕윤리와 교육학회, pp. 77~78.

시키면서 成功的인 教授-學習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多樣的인 教授-學習 資料가 蒐集 또는 製作되고 活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代案으로 거의 매일 新聞 紙上에 실려지고 있는 훈훈한 美談記事와 奉仕活動 記事 등 아름다운 이야기 기사와 각종의 사건사고 기사는 학생들의 興味誘發과 學習意慾 鼓吹에 매우 有用하다. 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사들은 多樣的인 價値들을 內包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多樣的인 가치를 體驗하게 하고, 그들 多樣的인 가치 중에서 적절한 가치를 올바르게 選擇하게 하는 능력, 즉 道德的인 價値判斷力을 伸張시킬 수 있는 重要的인 學習媒 體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문은 時事性이 있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으며 多樣的인 價値들을 內包하고 있는 풍부한 內容의 살아있는 자료들을 손쉽게 접하게 해준다. 흥미있는 접근은 學習意慾과 直結되기 때문에 교사의 教育的인 意 圖가 조금만 더 加味된다면 신문활용교육은 특히 도덕과에서 높은 교육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

신문 기사를 활용한 學習 過程속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어떠한 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또 동료 학습자들과 서로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道德的인 價値判斷力은 向上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研究의 目的은

- (1) 신문에 나와 있는 現實的인 示唆的인 事實 問題들을 통하여 道德科 教授- 學習의 質을 높일 수 있도록 新聞記事를 學習資料로 活用할 수 있게 再構 成하고,
- (2) 再構成한 資料를 도덕과 교수-학습에 실제로 投入하여 活用하는 方案을 摸索함으로써,
- (3) 學生들로 하여금 生活周邊의 어떠한 問題狀況에서도 스스로 價値를 올바 르게 判斷하고 選擇하여 바른 생활을 實踐하도록 하는데 있다.

## 2) 研究의 方法

연구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덕과 교육의 특성과 價値判斷力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內容的인 特性和 方法的인 特성을 먼저 살펴본 후에 도덕과 교육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나서 도덕과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道德性 習得을 위해, 필요한 道德的 價値判斷力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가치의 본질과 價値判斷의 성격 및 價値判斷의 過程을 살펴보려 한다. 아울러서 가치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같은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치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價値論爭의 解決方案提示를 위하여 가치논쟁이 일어나는 原因에 대하여도 알아 보기로 한다.

다음은 新聞을 교육적으로 이해하고 新聞의 教育的 機能과 新聞活用 教育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新聞을 道德的 價値判斷力의 伸張을 위한 資料로서 正確하게 理解해야 하겠기에 新聞의 概念, 新聞報道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 뉴스의 가치에 대하여 알아본 후에 新聞의 一般的인 機能을 통하여 新聞 자료는 教育的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는 요즘 활발히 教育現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NIE, 즉 新聞活用 教育에 대하여 그 意味와 重要性을 알아보고 도덕과 教育에서 특히 新聞을 活用하면 좋은 점을 제시하려 한다. 아울러서 新聞活用 教育에서 고려할 사항을 提示하고, 新聞活用 教育의 實態를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 다음은 도덕적 價値判斷力 伸張을 위하여 新聞을 자료로 活用하는 具體的인 方案에 대하여 提示하게 된다. 우선 道德科 教育課程 分析에 따른 單元別로 學習指導시 필요한 新聞 기사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新聞記事를 학습에 活用하기 위해서는 新聞 기사를 教材化 하여야 편리하게 학습에 活用될 수 있으므로 그 방안을 제시하고 도덕과 학습지도에서 일반적인 수업 흐름에 따라 新聞 기사 자료를 活用하는 방법 및 그 實際의 例가 제시된다. 또한 요즘 들어서 人性教育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餘裕時間을 價値判斷力 伸張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新聞記事를 교육적으로 活用하는 方案에 대하여서도 제시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 (1) 본 연구는 初等學校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六學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學習指導에 있어서 評價方案의 提示까지는 關心을 두지 못했다.
- (3) 道德的 價値判斷力이 伸張되었음을 알아 볼 수 있는 具體的인 尺度 또는 方案을 提示하지 못했다.

## Ⅱ. 道徳科 教育의 特性과 價値判斷力의 重要性

### 1. 道徳科 教育의 特性

오늘날의 韓國人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價値觀을 價値位階秩序의 시각에서 찾아보면 매우 심각한 다음 2가지<sup>5)</sup>의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고 고범서는 지적하고 있다.

첫째, 感覺的 價値와 生命 價値에만 관심이 사로잡혀서 宗教的 혹은 理念的 價値는 물론이요 精神的 價値를 상실 또는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理念喪失과 反知性主義 혹은 精神的 貧困은 삶의 뿌리가 없는 無主體的 順應主義를 초래했다. 둘째, 價値觀의 顛倒 다시 말해서 感覺的 價値나 生命 價値와 관련된 物質的 價値에만 사로잡히기 때문에 理念的 價値와 精神的 價値가 망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높은 가치가 도리어 낮은 가치인 物質的 價値들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고만 있다는 사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宗教나 理念과 精神이 物質을 얻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급히 要請되고 있는 것은 教育이 本然의 責任과 使命을 깨닫고 우리 국민이 理念的 價値와 精神的 價値에 눈을 뜨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같은 價値觀에 의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달라져야 하며,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에 교육이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주로 담당하는 것이 곧 道徳科 教育인데 여기서는 이 道徳科 教育의 特性에 대해서 內容的인 面과 方法的인 面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內容的 特性

現在 시행되고 있는 제6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 과정에 따르면, 도덕과는 道徳的 原理나 規範의 合理性을 이해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提起되는 도덕적 문제를

5) 고범서(1993), 「가치관 연구」, 나남, pp. 279~281.

올바로 判斷하고 選擇하며, 實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덕과 내용 선정의 취지에는 도덕과에서 다루는 내용의 特性이 含蓄되어 있는 바, 그 주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6)</sup>

첫째, 道徳科에서는 道徳的 問題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사물이나 사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올바르게 把握하거나 혹은 개념의 의미, 개념들 간의 논리적 관계의 인식만으로 完全하게 說明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능력이다. 어떤 사태에서 그와 관련된 사실이나 지식을 充分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事態에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 따라 實踐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적절한 도덕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도덕과의 내용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며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데 요구되는 規範的이고 當爲的인 것이다. 비록 도덕과에서 事實的 知識이나 論理的 知識 등을 다루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副次的인 位置를 차지할 뿐이고, 도덕과의 중심적인 내용은 規範的이고 當爲的인 性格을 갖는다.

둘째, 도덕과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提起되는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여기서 '일상 생활'이란 학생들의 전 생활 영역 곧 개인으로서의 생활, 가정·이웃·학교와 같은 近隣 共同體의 일원으로서의 생활, 보다 넓은 社會 成員으로서의 생활 및 한 國家와 民族共同體의 일원으로서의 생활을 의미한다. 도덕과에서는 학생들이 이 같은 일상 생활의 제 영역에서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요구되는 規範들을 다룬다. 그런데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요구되는 이같은 규범들은 時間과 空間을 초월한 普遍的인 道徳的 原理들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규범이다. 여기서 주된 규범들은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도덕·윤리적 문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요컨대, 도덕과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우리의 전통에 뿌리를 둔 것이며,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방향짓는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는 규범들인 것이다.

---

6) 교육부(1977), 전제서, pp. 6~7.

## 2) 方法的 特性

초등 학교 도덕과 교육의 방법적 특성은 道德的 論議 樣式의 獨自性和 교육 대상 학생의 도덕적 발달 단계에 대한 배려에 의해 다음과 같이 밝혀질 수 있다.<sup>7)</sup>

먼저, 도덕적 논의 양식의 獨自性으로부터 드러나는 도덕과 교육의 방법적 특성을 살펴보면 도덕과에 포함된 지식이나 原理·規範들은 다른 교과와 관련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가 고유한 특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교과를 特徵 짓는 것은 그 교과 속에 어떤 요소, 어떤 지식들이 있느냐 보다는, 그것들이 어떤 方法論的 特性에 의해 獲得된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각 교과마다 그 자체의 特有한 探究의 原理와 知識 體系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도덕과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논의 양식을 통해 道德的인 問題에 적절히 對應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룬다. 도덕적인 문제에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이해 관계가 介入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적절한 절차와 論議 樣式들을 발달시켜 왔다. 倫理學者들이 발달시켜 온 규범적 가치에 대한 정당화의 과정이나, 도덕 교육 학자들이 개발한 다양한 도덕적 문제 해결의 과정 등이 도덕적 논의 양식의 特性을 보여 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과에서는 이같은 獨自的인 道德的 論議 樣式을 토대로 학생들이 도덕과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道德的 問題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적절한 안목을 발달시켜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 대상 학생의 道德的 發達 段階와 관련된 도덕과 교육의 방법적 특성을 살펴보자. 도덕과 교육의 실제 과정은 구체적인 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대상 학생의 도덕적 발달 단계에 대한 고려가 교육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초등 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과 교육은 1~2학년의 바른 생활과 교육을 出發點으로하여 중학교 도덕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系列的 關係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 바른 생활과는 초등 학교 저학년의 도덕적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적인 생활 예절과 도덕 규범의 습관화에 강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도덕과는 도덕적 문제 사태 해결과 價値判斷 및 選擇 能力을 길러 자율적 道德性을 習得하게 하는데 重點을 두고 있다.

7) 교육부(1977), 전제서, pp. 7~8.

따라서 저학년 바른 생활과와 중학교 도덕과 간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초등 학교 3~6학년의 도덕과는 기본적인 규범의 습관화를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中核的인 規範들의 內面化를 통해 점차 自律的 道德性 形成의 段階로 나아가게 하는데 지도의 초점을 둔다.

價値判斷 및 選擇能力을 길러주는 교육은 중학교 과정에서 重點的으로 이루어 지겠지만 바로 전 단계인 初等學校 六學年科程에서도 基本的인 禮節生活과 道德 規範의 習慣化와 함께 道德的 價値判斷力의 伸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2. 道德科 教育의 課題

道德教育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道德規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어, 그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道德的인 問題를 만나면, 어떻게 行動하는 것이 道德的인 되는가를 道德規範을 準據로 判斷하고, 그 判斷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道德性을 학생들에게 形成시켜주는 過程 내지는 그 일이다.<sup>8)</sup>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건전한 道德性을 涵養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道德科 教育의 課題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이라는 말은 매우 抽象的인 것이어서 이 陳述만으로 道德科 教育의 課題를 분명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初等學校 道德科 教師用指導書에서 설명하고 있는 道德性의 意味는 다음과 같다.<sup>9)</sup>

첫째, 道德性은 道德的 規則이나 原理 혹은 規範의 合理性을 判斷하고 選擇하며, 그것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이나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능력을 일컫는 말로 理解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의미의 道德性은 '淳惡判斷의 能力'이라고 볼 수 있으며, 道德性의 知的인 側面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道德性은 道德的 規則이나 原理를 內面化 하고, 이를 實踐하려는 態度나 性向을 일컫는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는 도덕성의 行적이며 實踐的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다시 말하면 道德科 教育의 課題는 학생으로 하여금 도덕성의 두 측면을 잘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곧 학생들이 보다 넓고 깊이가 있는 道德的 人品을

8) 남궁달화(1995), "도덕교육 방법의 개선방향", 『교육 월보』, 4월호, p. 36.

9) 교육부(1997), 전계서, p. 6.

形成해 나가고, 이와 一貫되게 行動을 實踐함으로써 학생들의 全般的인 도덕적 삶이 향상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도덕과 교육의 과제이다. 그리고 또다른 관점에서 보면, 道德性은 한 개인 內部에서 그 內因이 翫得하거나 내면화시킨 도덕적 원리들이 統合되어 具體化된다. 道德的 原理란 “어떤 狀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道德的인 것이다.”라는 行爲의 法則을 말한다.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에 많은 식의 도덕적 원리를 갖게 된다. 그런데 여러 개의 도덕적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경우에 그 원리들은 서로 모순될 수도 있다. 만약 모순된 도덕적 원리들이 한 인간의 道德生活을 支配한다면 그는 一貫된 態度로 생활하기가 어렵다. 내면화된 道德的 原理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의미있게 관련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의 삶을 도덕적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삶을 道德的으로 인도하는 規範의 體制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을 특징짓게 된다. 통합된 도덕적 원리가 실제 생활을 一貫性 있게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높은 인격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인격의 개념에서 본다면, 道德科 教育의 課題는 學生들의 人格을 涵養하도록 돕는 일, 즉 道德的 原理들 간의 統合과 그에 一貫된 生活態度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도덕의 概念은 곧 교육의 개념과 분리될 수 없으며 또 教育的인 社會는 곧 도덕적인 사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道德教育의 실패는 곧 모든 교육의 실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모든 교육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겠기에 아울러서 도덕과 교육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말한 道德性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첫 번째의 道德性, 즉 知的인 側面의 道德性에 重點을 두고 指導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3. 道德的 價値判斷力의 重要性

道德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共同生活을 할 때의 思考方式이나 行動의 規準을 意味한다. 따라서 道德教育의 根本目的은 道德的 原理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하는 人格을 育成하여 多樣한 人間關係 내지 社會的 事態에 一貫性 있게 그 原理를 適用하여 適切한 行動을 遂行할 수 있는 實踐力을 기르는데 있



다. 10) 實踐에는 判斷力이나 意慾이 必要하다. 道德的 實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텔레비전의 害毒'과 같은 産業社會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道德的 障礙要因을 사전에 막고 현실의 생활 장면에서 適切한 狀況判斷을 행하는 훈련을 하고, 道德的 價値의 實現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의욕 등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 1) 價値의 本質

가치란 교육학 대사전<sup>11)</sup>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주관의 情意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성질이라 했다. 주관의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물이 主觀에 대해서 가치있는 것이요, 즉 有價値한 것이다. 보통의 판단이 주어와 술어 사이의 事實的 關係를 표시하는 것임에 대해서, 가치판단은 보통의 판단에다 주관의 가치 의견을 더 보탠 것이다. 따라서 價値判斷은 事實判斷을 먼저 전제하고서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것을 사실적 판단에 대한 주관의 반응을 들어내는 의미에서 판단의 판단이라고도 말한다.

헤센(J. Hessen)은 가치를 "欲求를 充足시켜 주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特定欲求를 充足시켜 주는 데 적합한 모든 것을 가치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sup>12)</sup>고 하였다. 이 定義는 자연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에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도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신적인 가치들을 통하여 인간에 내재한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자연적인 욕구들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 있는 욕구들이다. 그래서 윤리적인 가치는 인간 안에 있는 윤리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는 모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가치는 非感覺的 對象의 종류에 속한다. 가치들의 존재 방식은 觀念的 存在이거나 觀念的 妥當性의 존재 방식이다.<sup>13)</sup> 비감각적 대상이란 관념적 대상들이다. 관념적 대상들의 주요 특징은 非實在性(현존재가 없는 본질이다), 無時間性(시간적으로 생성소멸하는 것 밖에 있다), 客觀性(실재적 질서가 없기는 해도 객

10) 이종호(1987, 「도덕과 교육론」, 형설출판사, pp. 17~18.

11)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1975), 「교육학 대사전」, 교육과학사, p. 10.

12) J. Hessen, 「가치론 ( Wertlehre )」, 진교훈 역(1992), 서광사, p. 36.

13) J. Hesssn, 상계서 pp. 41~42.

관적인 것을 묘사한다)이다. 관념적 대상들의 세계는 주관과 관계가 되어 있다. 즉 그 세계는 정신에 의해, 정신을 위해 存在한다. 다시 말해서 觀念的 對象의 영역은 정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精神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정신세계도 존재하지 못한다. 이것은 동시에 價値가 한낱 主觀的인 것이 아니며, 자의와 개별적인 주관의 기초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저 정신적 세계는 超個人的·客觀的인 世界이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세계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 즉 모든 정신적 존재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란 항상 客觀性 있고 妥當性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수많은 개인들이 모여 이루어졌다. 모든 개인들에게는 가치들이 존재한다. 그 가치들 중에서 어떤 가치들은 단지 개인적인 타당성만을 가진 것도 있다. 그 가치들은 단지 가치를 평가하는 몇몇의 개인에게만 유효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매우 가치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가치란 존재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가치는 그 存在性格上 理念的 存在이다. 따라서 가치의 개념은 現實的 對象의 概念처럼 科學的 說明이 불가능하며 또한 개념의 정의가 불가능한 것 중에서 최상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sup>14)</sup> 그러므로 가치는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體驗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는 현실에 나타나야만 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現代人에게 가장 根本的인 問題는 人間 疎外의 모순을 극복하고 인간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금전과 권력 그리고 향락 따위의 外形的 價値가 인간의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위치에서 제구실을 하는 그런 價値體系가 定立되고 이것이 윤리의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인간 및 인간적 가치가 가치체계의 정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최고의 목적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sup>15)</sup> 그리고 금전 따위의 수단적 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추구됨이 없이 항상 인간을 위해서 활용되는 동시에 수단이 목적을 압도하는 主客顛倒 없는 생활풍토가 존중되어야 한다.

14) 박선목(1994), 「윤리학과 현대사회」, 학문사, p. 218.

15) 김태길외(1983), 「국민윤리」,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pp. 77~78.

그러므로 價値도 探究해야 한다. 倫理的인 問題 狀況에 직면 하였을 때에 어떤 가치 또는 行爲가 正當化 될 수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그 문제와 관련되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는 원리 또는 규범을 확인하려는 가치탐구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남궁달화는 도덕교육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네 가지 주요 절차로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sup>16)</sup>

첫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道德規範을 가르쳐야 한다. 道德規範은 道德的 價値로 구성된다. 도덕의 規則, 原理, 德目 등은 도덕 가치이다. 도덕교육은 일차적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 같은 道德規範을 일러 주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도덕적 삶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기도 한다.

둘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道德的인 問題가 무엇인가를 認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우리는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그러나 當面하는 문제가 모두 다 道德的인 問題는 아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도덕적 문제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도덕적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덕적 문제인 줄을 인식하지 못해 지나쳐버린다면 道德的으로 處理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이 되는가를 判斷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즉 道德的 價値判斷能力을 길러 주어야 한다.

넷째, 도덕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道德的 行動을 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의 장면, 즉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이 道德的 行動을 직접 다룰 수는 없다. 도덕적 행동은 도덕교육의 장면에서 사실상 다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道德教育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이유는 도덕교육의 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항상 도덕적 행동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덕교육의 장면에서 교사가 다루어야 할 實際的 또는 現實的 目的은 학생들에게 道德性을 形成시켜 주는 일이다. 道德教育의 실제적 목적을 이처럼 도덕성의 형성으로 보는 것은 道德性은 知·情·意가 작용하여 道德規範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인간의 내적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의 과정을 거처가면서 客觀的이고 妥當性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학교교육에서 필요한 것이다.

## 2) 價値判斷의 性格

16) 남궁달화(1995), 전계서, pp. 36~37.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행위나 품성, 자동차나 그림과 같은 물리적 대상, 또는 정치제도나 정책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대상들이 옳으나 그르냐 또는 좋으나 나쁘냐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내린다. 가치판단은 이렇게 어떤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판단을 평가적 의사결정이라고도 한다. 가치판단은 道德的 觀點에서 뿐 아니라 經濟的 觀點, 打算的 觀點, 法律的 觀點, 教育的 觀點, 生態學的 觀點, 美的 觀點 등 多樣的 觀點에서 내릴 수 있으며, 그러한 관점들 각각에서 내린 판단을 고려한 綜合的인 觀點에서 내릴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價値判斷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sup>17)</sup>

#### (1) 價値判斷의 對象

가치판단의 대상을 評價對象이라고도 하는데 사물이나 사건, 행위나 사람, 관행이나 제도 등 거의 모든 것들이 價値判斷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덕·윤리과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價値判斷의 대상은 크게 個人的인 價値와 관련된 문제와 社會的인 價値와 관련되는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치가 관련되는 사회적인 문제에는 인공임신 중절, 안락사 등 그것이 옳고 그르냐에 관한 찬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老人 福祉 政策, 金融 實名制 實施 등 사회적으로 실현해야 하거나 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개인적인 문제로는 靑少年 吸煙, 婚前 性經驗 등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나 청소년들의 이익 또는 건강과 직접 관련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職業의 選擇, 進學의 問題와 學科의 選擇 등 순수한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다. 그외에도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들을 평가대상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

#### (2) 價値用語 (評價用語)

어떤 對象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용어를 가치용어 또는 평가용어라고 한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해야 한다', '해서는 안된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와 같은 일반적인 가치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그밖에 '효과적이다', '교육적이다', '현명하다', '공정하다', '착하다' 등은 특수한 관점을 드러내는 價値用語들로 사용할 수 있다.

17) 조성민·정선심(1993), 「논리와 가치 탐구」, 철학과 현실사, pp. 29~37.

### (3) 價値判斷의 觀點

價値判斷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떤 特定한 觀點에서 價値判斷을 내리게 마련이다. 가치판단의 관점에는 道德的인 觀點, 法律的인 觀點, 經濟的인 觀點, 打算的인 觀點, 生態學的인 觀點, 美的 觀點 등이 있다. 道德的인 觀點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價値判斷의 觀點들 중에서 도덕적 관점이 대체로 우선한다.

가치판단의 관점은 가치용어 또는 評價用語를 보고 파악할 수 있다. '아름답다'는 미적 관점에서, '賢明하다'는 打算的인 觀點에서, '公正하다'는 道德的인 觀點에서, '效果的이다'는 經濟的인 觀點에서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와 같은 一般的인 價値用語는 具體的으로 관점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관점에서 판단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 가치용어로 價値判斷을 하려는 사람은 관점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만약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치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점을 提示해주거나 또는 특정한 학생들이 정해서 價値判斷을 하도록 하는 것이 混同을 피할 수 있다.

### (4) 評價的 推論의 構造

어떤 것에 대한 價値判斷을 내리고 그 理由를 提示할 때는 事實的 根據(가치판단을 지지하는 사실)와 規範的 根據(準據 또는 價値原理)를 제시해야 한다. 이윽나 근거를 제시하여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을 自然主義的 誤謬 (naturalistic fallacy)라고 하는데, 價値判斷이 결론으로 나오려면 또 다른 가치판단이 전제로서 제시되어야만 가치판단이 正當化 될 수 있다.

### (5) 合理的 價値判斷의 基準

價値判斷을 正當化하는 데는 事實과 價値原理(準據)를 필요로 하나 사실과 가치원리가 제시되었다고 해서 모든 가치판단이 合理的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가치판단을 내리고 그 가치판단에 대한 근거로서 사실과 價値原理를 제시한 후, 合理的인 가치판단을 내렸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치판단을 지지하는 사실적 진술이 참이고, 사실이 가치판단과 관련성이 있다면 그 사실은 가치판단을 충분히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사실적 진술이 참이 아니거나, 사실이 가치판단과 관련성이 없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價値判斷을 내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事實的 陳述이 참이고 사실이 가치판단과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의 사실만을 바탕으로 해서 價値判斷을 내린다면 그 가치판단을 받아들이기는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적 진술들이 참이고, 사실들이 價値判斷과 關聯이 있으며, 많은 사실들을 根據로 價値判斷을 내린다면 우리는 보다 더 믿을 만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다. 가치판단의 合理性을 높이려면 價値判斷과 關聯性이 있으면서 참인 사실적 진술들을 되도록 많이 수집해서 제시해야 한다.

### 3) 價値判斷의 過程

우리 개인은 價値判斷의 能力을 高揚시켜야 한다. 가치판단의 능력이란 道德的 觀點을 넓히고 안목을 확장하며 道德的 洞察力을 깊게 하는 能力을 意味한다.<sup>18)</sup> 또한 이러한 가치판단의 能力高揚의에도 자신의 바람직한 價値判斷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가치판단의 能力과 기준을 정립하고 강한 倫理意識으로 이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만이 社會的 自我와 關聯해서 타인을 尊重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만이 현대를 사는 韓國人에게 요청되는 바람직한 個人像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價値判斷이 내려지는 과정과 각각의 段階에서 遂行해야 할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성민·정선심은 다음의 6가지 단계<sup>19)</sup>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 (1) 價値問題의 確認 및 明瞭化

##### ① 價値判斷 對象의 確認

價値判斷을 하려면 우선 주어진 問題에서 무엇이 價値問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즉 價値判斷의 對象(價値問題)을 확인해야 한다.

##### ② 用語의 定義

價値問題가 확인이 되면 價値問題에 들어 있는 核心 概念이 애매하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용어를 분명히 해둔다.

##### ③ 價値判斷의 觀點의 確認

그 다음은 價値問題에서 어떤 관점에서 價値判斷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18) 유정복(1995), 「윤리와 사회」, 형설출판사, p. 53.

19) 조성민·정선심(1993), 전개서, pp. 37~57.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2) 價値判斷의 對象에 관한 事實蒐集

① 事實主張과 價値主張의 구별

價値判斷의 대상에 관한 事實을 蒐集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價値主張(價値判斷 또는 評價的 陳述)을 事實主張(사실 판단 또는 사실적 진술)과 혼동해서 사실 속에 포함시키는 일이다.

② 肯定的 事實과 否定的 事實의 區別

사실을 수집할 때 肯定的인 事實들 뿐 아니라 否定的인 事實들 모두를 蒐集하도록 한다. 肯定的인 價値判斷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지지하는 사실들을 구분해서 정리해 두면 價値判斷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3) 事實의 檢査와 關聯性 檢査

① 事實 陳述 속에 있는 用語의 定義

사실이 수집되었으면 사실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먼저 해야 할 것은 事實의 陳述 속에 들어 있는 핵심 용어들을 明瞭化 해야 한다. 왜냐하면, 曖昧模糊한 용어가 들어 있는 사실적 진술에 대하여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檢査하기가 곤란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② 事實의 檢査

사실에는 特殊한 事實(個別的 事實), 一般的 事實, 條件的 事實이 있다. 사실들의 종류에 따라 그 진술의 참 거짓을 알아보는 方法이 다르다.

③ 事實의 關聯性 檢査

사실적 진술들이 참인지 아닌지를 評價한 후에는 사실들이 내려야 할 가치 판단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4) 暫定的 價値判斷

사실들을 수집하고, 사실적 진술들이 참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사실들의 관련성에 대한 검사가 끝났으면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價値判斷을 내릴 수 있다. 가치 판단을 내린 후 가치 판단에 함축되어 있는 價値原理, 事實들, 價値判斷을 三段論法으로 構造化해 놓는다. 가치 판단의 특성에 나와 있는 구조로 구조화 하면 가치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데 편리하다.

(5) 價値原理의 受容性 檢査

① 새로운 事例 檢査

이 검사 방법은 價値判斷을 내릴 때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는 원리를 반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낼 수 없으면 그 原理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원리 속의 特性을 갖고 있는 다른 사례에서도 그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이다.

② 包攝 檢査

새로운 사례 檢査方法은 주로 價値原理를 반박하는 방법임에 반하여, 包攝檢査는 검사 대상이 되는 원리보다 더 일반적인 원리에 포섭시킴으로써 그 원리를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이 검사는 검사해야 할 가치원리가 그 價値原理보다 더 일반적인 가치원리의 下位原理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正當化하는 方法이다. 다시 말해서 더 일반적인 가치원리를 제시해서 가치원리를 정당화하는 것이 포섭 검사이다.

③ 役割交換 檢査

이 검사는 價値原理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거나 또는 가장 역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立場에다 자신을 대치시키고 나서, 그 때에도 價値原理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④ 普遍的 結果 檢査

이것은 가치원리 속에 기술되어 있는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취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이다.

(6) 最終的 價値判斷

價値原理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檢査한 후, 가치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원리에 의해 지지를 받은 價値判斷은 최종적인 가치판단이 된다. 하지만 가치원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價値原理를 수정 또는 보완하고 가치판단도 다시 내리도록 한다.

4) 價値論爭의 解決

학생들은 앞에서 살펴 본 가치판단의 과정을 그대로 밟으면서 똑같은 가치문제



를 가지고 價値判斷을 내리더라도 서로 다른 價値判斷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학생들은 이처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치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論爭을 벌이기 마련이다.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이 똑같은 問題點에 대해서 다르게 가치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달라졌나를 알면 개인 간의 의견차이를 比較的 쉽게 解決할 수도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조성민·정선심은 다음의 세 가지<sup>20)</sup>로 分類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1) 事實에서의 差異

서로 다른 가치판단을 내렸을 경우에 사실에 대해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갈등을 경우가 많다. 事實에서 의견차이가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떤 특정한 사실이 가치판단을 내리는 데 關聯性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사람들마다 關心이 다르기 때문이다.

(2) 概念에서의 差異

가치판단 간의 葛藤이 개념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다. 개념에 대한 너무 넓은 정의는 그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대상까지도 포함하는 問題點이 있다.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3) 價値原理 또는 窮極的 價値에서의 差異

궁극적 가치로서 생각될 수 있는 것으로는, 정의, 자유(언론 집회, 표현 등), 평등, 생명의 존중, 재산권, 사생활권, 행복, 자아실현, 사랑, 정직, 질서, 등이 있다.

이상의 세 가지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가치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 원인이 개별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나 원인들이 서로 얽혀서 價値葛藤이 일어난다. 사실 진술 속에 들어 있는 개념을 서로 달리 이해하므로 인해 생기는 갈등의 문제는 概念上的 問題이기도 하고 사실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가치원리의 충돌이 해소되고 나면 다시금 사실을 검토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리고 궁극적인 가치들에 대한 믿음이 양보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尖銳하게 대립할 때에는 문제의 해결이 더 어렵게 된다.

---

20) 조성민·정선심(1993), 전제서, pp. 57~64.

### Ⅲ. 新聞의 教育的 機能과 新聞活用教育

#### 1. 新聞의 教育的 理解

##### 1) 新聞의 概念

신문이란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一般사회 또는 特殊社會의 報道機關으로서 새로운 報道나 批判을 매일 매일 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迅速하고도 普遍的으로 전달하는 定期刊行物”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차배근은 “特定한 組織體가 뉴스나 情報를 蒐集·處理·製作하여 新聞紙라는 大衆媒體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定期的으로 제공하여 그들의 精神的 欲求를 만족시켜 주고 그 代價로 利潤을 追求하는 經濟的인 동시에 公共性을 지닌 文化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sup>21)</sup>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特定한 개인이나 조직이 뉴스를 蒐集, 處理하여 新聞紙라는 大衆媒體를 통하여 讀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그 대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동시에 文化적 커뮤니케이션 행위”<sup>22)</sup>라는 풀이도 있다. 이상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김지용은 “신문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서 이것을 운영하는 조직체가 새로운 정보를 수집→작성→편집→제작→인쇄하여 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sup>23)</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2) 新聞 報道的 要件

현대 사회에서 신문이 해야 할 일은 精選된 情報를 一目瞭然하게 지면에 담아 독자들에게 傳達하여<sup>24)</sup>줌으로써 독자인 수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다. 신문은 새로운 소식을 蒐集·加工·販賣하여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볼 때 단순한 욕구 충족은 자칫 잘못하면 一方的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어 公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문은 基本的으로 보도의

21) 차배근(1987),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下」, 세영사, pp. 19~20.

22) 박유봉 외(1994), 「신문학 이론」, 박영사, p. 24.

23) 김지용(1996), 「현장신문론」, 도서출판 쟁기, p. 24.

24) 임준수(1995), 「신문은 편집이다」, 나남출판, p. 32.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김지용은 신문 보도의 要件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要件을 提示하고 있다.<sup>25)</sup>

신문 보도는 첫째, 時事性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 자체가 客觀的이고 時事性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든 새로운 情報을 제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둘째, 公共性이 있어야 한다. 정보가 制限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사실이 아니라 일반이 널리 알 수 있도록 公開的이고 普遍的이어야 한다. 셋째, 公正性이 있어야 한다. 수집된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사실들이 편협되거나 소수를 위한 代辯이 아니라 公衆을 위한 내용이며 批判이어야 한다. 넷째, 定期性이 있어야 한다. 1회 내지 間歇的인 大字報가 아니라 매일 매일이라든지 일주일에 몇 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신문은 時事性 있고 普遍的인 사실을 公正性 있게 定期的으로 報道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문에서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과연 뉴스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게 되는지 김지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26)</sup>

뉴스란 세상을 내다보는 하나의 창문이다. 사람들은 이 창문을 통해서 자신을 배우고 남을 이해하게 되며 그 들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등을 알게 되고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도 보게 된다. 이처럼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뉴스란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것과 알 必要가 있는 것을 비롯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창문을 통해 드러나는 뉴스는 그 창문의 形態에 따라 다른 꼴로 나타날 수 있게 마련이다. 창문이 크면 크게 보일 것이며, 창문이 작으면 뉴스는 작게 보일 것이다. 등근 창으로 보면 등글게 보일 것이고 네모난 창으로 보면 네모로 보인다. 또 유리가 깨끗하나 더러우나 아니면 창문이 길가 쪽을 향해 있느냐 뒷골목으로 나 있느냐에 따라 뉴스의 내용은 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창가에 서 있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바깥 풍경은 다르게 나타난다. 창가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창가에 비스듬히 서 있는 경우와 똑바로 서 있는 사람

25) 김지용(1996), 전계서, pp. 29~30.

26) 이상우·류창하(1992), 「현대신문 제작론」, 도서출판 나남, pp. 17~28.

의 눈에 비치는 바깥 세상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말하자면 뉴스는 相對的이다. 똑같은 말 한 마디도 상대에 따라 뉴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사람 뿐 아니라 사건도 마찬가지다. 같은 크기의 火災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방 소도시에서 일어났으면 그 지방 신문의 톱뉴스가 될 수 있겠지만 中央紙에서는 뉴스로 취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뉴스의 가치는 時代的 狀況이나 社會의 價値基準 變化에 따라 달리 한다. 1960년대의 미니스커트는 하나의 핫 뉴스였다. 무릎위로 30cm가 올라가면 경찰이 단속했을 정도였으니 當然히 뉴스가 되었지만 요즘에는 초미니 스커트가 결코 뉴스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사회적 가치기준을 재는 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뉴스는 또 독자와 미디어 그리고 利害 當事者에 따라 뉴스가치를 달리 보게 된다. 종업원이 1천 명이 넘는 어느 지방의 신발 공장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종업원들에게 급료도 지불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그 지방에서 발행되는 지방지로서는 당연히 톱뉴스감이다. 그것은 그 지방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며, 1천 명이 넘는 실업자 구제문제가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크게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의 힘으로 再起가 가능할 수도 있을 지 모른다는 것이 미디어의 생각이다. 그러나 지방 상공회의소나 노동부 당국자 혹은 관련 지방관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기사화가 안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리고 실제 언론사에 이를 협조 요청 하기도 한다. 公務員들의 主張은 이것은 나쁜 뉴스인데 사람들에게 굳이 나쁜 뉴스를 전해서 기분을 잡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이다. 일반 독자들뿐 아니라 기업가들에게도 사기를 저하시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서 보듯이 뉴스는 같은 사건 혹은 事案을 두고 미디어, 독자, 주요 뉴스원인 공무원 등이 입장을 달리 한다.

뉴스 가치의 기준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뉴스 價値 基準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뉴스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自由主義 미디어의 뉴스는 本적으로 뉴스의 需用者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곧 뉴스 가치의 기준은 수용자의 입장에서 決定되어 진다. 需用者가 싫어하거나 거부할 경우 뉴스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반면 共產主義 국가는 미디어가 뉴스 가치의 기준을 정한다. 수용자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전혀 상관없다. 미디어가 判斷하기에 이것은 需用者 곧 국

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事項이면 무조건 뉴스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뉴스 가치의 기준은 커뮤니케이터의 입장에서 결정되어 진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와 미디어는 소유자체가 國家이니 만큼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곧 뉴스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뉴스 가치란 뉴스 기사에 관한 것이지 사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과연 어떤 것이 뉴스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좀더 具體的으로 알아 보기로 하겠다. 첫째, 뉴스 가치는 최근에 일어났고, 갑작스러우며, 曖昧模糊하지 않고, 豫測 可能하면서, 適切하고 국내의 文化 環境과 密接한 事件에 대한 기사를 우위에 두게 된다. 둘째,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서 政府의 政策을 비롯해서 국내 사건(갈등, 폭력, 재난, 인간적 흥미, 스포츠)에 우선 順位가 주어진다. 셋째,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서의 우선 순위는 인간에 관한 것 특히 엘리트 국가의 국민에 관한 것들로서 부정적인 나쁜 뉴스에 주어진다. 그 밖에도 뉴스는 수도권 중심주의와 가부장주의적 뉴스에 보다 높은 價値를 附與하게 되며, 독자나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常識的이고 娛樂的이며 視覺的인 것으로 그러나 극적이고 픽션같은 魅力的인 것에 우선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 3) 新聞의 機能

신문은 약 400년의 歷史를 갖는다. 신문은 이미 16세기 중반에, 아니면 늦어도 17세기 초반에 極東과 유럽에서 出現하였다. 그래서 신문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언론의 매스 미디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제1세대 미디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sup>27)</sup> 이처럼 신문은 1900년 대에 들어와 라디오와 영화가 출현할 때까지 즉 音聲, 音響 및 映像 媒體가 나오기 전까지는 言論 媒體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주축을 이루어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TV등 영상 매체의 迅速性和 생생한 현장화면의 전달에 과거보다 다소 重要性에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文字化 되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 중요한 言論媒體이다.

그러면 왜 신문이 이와같이 오랜 세월동안 중요한 言論媒體로서 우리들 곁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신문이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에 대

27) 최정호 외(1992), 「매스 미디어와 사회」, 도서출판 나남, p. 79.

해서 김지용은 신문을 보면 크게 일반 기사 즉 뉴스와 광고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서 신문의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28)</sup>

신문의 기능은 一般的 機能과 廣告 機能의 2가지가 있다. 一般的 機能에는 첫째, 취재 보도기능이 있다. 이는 신문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정치, 경제, 교육, 날씨, 교통사고 등을 포함한 一般社會生活에서 일어나는 국내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수용자에게 보고하는 행위, 즉 독자들에게 '일어난 현상'에 대한 사실을 客觀적으로 提供하여 주어 궁금증을 풀어줌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때문에 보도 과정에서 더욱 객관성이 중시되며 허위 사실이거나 謬誤는 독자를 誤導할 우려가 있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둘째는 啓導批判 기능이 있다. 社說, 論說, 漫評 등을 통해서 독자를 설득하고 어떠한 태도나 행동을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지식과 교양을 심어주고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論說自體가 정직해야 하고 불편부당한 방향으로 흘러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은 물론 언론 활동에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기관의 시책이나 정책의 是是非非를 가리는 批判의 기능도 갖는다. 셋째, 오락기능도 있다. 소설, 스포츠, 만화, 연예, 레저, 문화 등에 대한 기사를 전달해 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구실을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혐오적인 경우에는 독자들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한다. 끝으로 弘報機能이 있다. 각 신문사들은 증면과 함께 독자의 소리를 중시하기 시작하여 오피니언 (opinion) 페이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성화가 강조되면서 각계의 人物動靜이 늘어나고 있다. 또 환경 오염문제, 인터넷 부문의 중요성 등이 거론되어 이의 개선이나 활용을 권유하는 홍보적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신문의 광고 기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자신이나 자기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또는 기업에 대한 情報를 提供해 줌으로써 회사의 영업 활동을 돕고 다른 회사의 제품과 差別化를 소비자에게 알려 多量販賣를 노리는 광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겠다.

한편 최진우도 신문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一般的 機能으로 다음 2가지<sup>29)</sup>를 들고 있다.

첫째, 보도적 기능이다. 현대 신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일의 임무는 진실의 보

28) 김지용(1996), 전계서, PP. 31~33.

29) 최진우(1979), 「신문학 강의」, 중앙대출판국, 여기서는 박재덕의 석사학위논문(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과 정치교육을 위한 신문활용 방안」, pp. 25~26에서 재인용.

도에 있다. 인간은 新聞의 報道를 통하여 비로소 자기의 운명과 환경에 관한 사회적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그것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신문은 매일의 역사 변동을 보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신문의 뉴스 보도는 어디까지나 公正하고 客觀的으로 전달하는데 그 본분을 발휘할 수 있다. 신문의 뉴스 보도는 독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를 독자 대중에게 傳達해 줌으로써 신문의 사회의 반영이니, 사회의 거울이니 하는 구실을 다할 수 있다.

둘째, 指導的 機能이다. 현대 사회의 신문은 있는 그대로의 사회적 사건이나 사실의 보도만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사상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의견의 발표를 指導性으로 본다. 이 지도적 기능을 갖고 있는 신문은 기사 내용이 단순한 사회 환경의 반영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社會를 建設하려는 의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사회적 변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社會的, 國家的으로 問題點이 있다거나 또 거기에 해결하여야 할 障礙要因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잡고 合理化시키기 위하여 신문에 의견을 공시한다. 신문에 의견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社說과 論說이다. 이 사실과 논설은 그 신문이 갖는 권위로서 지도성을 발휘하게 된다. 신문 사설이나 논평이 앞에 말한 보도 기능과 다른 것은 보도가 발행자의 의견이 暗示的, 혹은 間接的으로 표현되는데 반하여 사설은 명시적, 直接的으로 나타내어 지도성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新聞의 機能은, 신문이 곧 우리 사회에 지대한 影響力을 행사하고 있는 중요한 媒體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신문이 독자를 制限하여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讀者들에게 신문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창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신문 기사의 내용은 投影되어 지고 행동도 관련되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신문의 보도 경향은 바로 靑少年들의 행동에 바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황치성은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신문의 제작과 報道 方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30)</sup>

첫째, 청소년들의 意識轉換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시야를 국제 사회로까지 넓히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국제화의 흐름과 국제 사회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그들이 그런

---

30) 황치성(1994), "일간신문의 청소년에 관한 보도경향", 한국언론연구원, 「청소년과 인쇄매체 연구서 25」, 대륙문화사, pp. 243~244.

정보를 어디서나 쉽게 接近할 수 있는 情報體系의 확립이 기대된다.

둘째, 自律學習의 機會를 넓혀주고 적성과 취향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기술의 첨단화와 같은 변화가 가져다 줄 지식정보 사회의 급속한 확산, 첨단기술에 의한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과 패권다툼, 다국적 기업 사업영역의 세계화와 같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知識·情報·技術·經營 方法들은 학교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경직된 교과 과정과 틀에 박힌 학습 방법만으로는 적절히 익힐 수 없다. 학교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폭넓은 첨단 정보와 기술, 기법들을 그 때 그 때 신문지면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투어 찾고 활용할 수 있는 名實相符한 첨단정보매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신문의 과제이다.

셋째, 자발적 참여의 민주시민 교육과 훈련이 되게 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의식전환이나 學習方法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교는 물론 청소년 육성기관과 連帶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국제화시켜 청소년들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의 참여, 指導力 등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올바른 靑少年 文化의 定着이 시급하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大衆文化, 특히 청소년 문화가 너무 快樂指向的, 遊戱指向的, 消費指向的 文化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전달되는 문화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화적 취향과 문화의식을 향상시켜 주는 文化暢達을 위해 매스미디어의 분발이 요구된다.

신문이 이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實現할 수 있을가의 問題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신문에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교육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道徳科와 관련하여 함께 지도하면 좋은 것이다.

#### 4) 新聞資料의 教育的 價値

신문에는 국내외의 크고 작은 事件과 事實들이 매일 같이 기록되고 있다. 이 기록들은 과거의 사실을 記述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대부분이 현재의 實生活에서 직접 접하고 느끼는 이야기가 거의 전부이다. 또한 신문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藝術, 廣告, 스포츠 등 社會 現狀을 골고루 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갖가지 現狀들을 總體的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이를 探究하는 지적 능력을



길러지게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多様な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媒體가 곧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신문 또는 신문을 비롯한 매스컴의 教育的 機能과 重要性에 대하여 強調되어 왔다.

이영덕은 신문 자료의 長點에 대해서 “신문은 教育的으로 이용할 價値가 크다. 학교에서는 신문 교육의 目標을 現實性 있게 뚜렷이 設定하고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신문 학습의 內容과 方法을 研究함이 타당하다. 특히 신문은 다른 미디어와는 달리 기록을 남긴다는 장점 때문에 現場에서 손쉽게 再構成하여 활용할 수 있다.”<sup>31)</sup>고 記錄性을 지적했다. 라병술은 매스컴의 機能的인 觀點에서 “매스컴이 교육적 기능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成長 發達이 왕성한 어린이들은 模倣的으로 학습하게 되므로 教育的 機能이 강하게 나타난다.”<sup>32)</sup>고 주장하면서 매스컴 자료의 이용으로 模倣 學習의 可能性을 말해주고 있다. 정세구는 “학생들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動因인 신문을 비롯한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등이 매스컴을 통하여 학생들은 사회 현상을 배운다.”<sup>33)</sup>고 하였다. 물론 학생들은 교육 과정에 의해, 教科書에 의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사회 현상을 배운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는 사회는 정적인 사회, 안정된 사회, 그리고 대부분 눈앞의 변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 기존의 知識化된 몇 년 전의 사회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당면 問題,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에 관하여 교육이 다루기를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여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 교육에서 사회 현상의 당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는 현 교육 실정에서 신문이야말로 教育的으로 有用하게 다룰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심진구도 신문이나 잡지의 教授-學習 媒體로서의 장점에 대해 “신문이나 잡지도 교과 학습의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교과서 이외의 각종 인쇄 자료를 創意的으로 활용함으로써 특히 高學年의 경우 다른 視聽覺 資料 없이도 교과서의 좁은 테두리를 벗어난 力動的인 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sup>34)</sup>고 主張하고 있다.

한편 韓國 新聞 協會에서 提示하고 있는 신문 기사의 교수-학습 교재로서의 長

31) 이영덕(1974), 「교수공학 이론」, 교육출판사, p. 224.

32) 라병술(1986), 「심리학 개론」, 형설출판사, pp. 290~291.

33) 정세구(1991), 「가치 이론과 가치 교육」, 교육출판사, p. 228.

34) 심진구(1988), 「교수 공학」, 교학연구사, pp. 107~108.

點<sup>35)</sup>은 다음과 같다.

- ① 最新 情報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 ② 實際로 있는 일과 있었던 일을 課題로 삼을 수 있다.
- ③ 현실에서 社會的으로 問題化한 것을 다룰 수 있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으며, 실감나고 흥미롭다.
- ④ 한 신문안에는 폭넓고 多樣的한 情報가 담겨 있으므로 정보를 取舍選擇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 ⑤ 여러 사람들이 실제 발언, 讀者投稿, 다른 意見, 多樣的한 思考 方式을 알 수 있다.
- ⑥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가면서 調查할 수 있다.
- ⑦ 누구나 손쉽게 접하고 구할 수 있다.
- ⑧ 사진이나 그래프, 그림 등을 多面的으로 使用할 수 있다.
- ⑨ 개인의 趣向에 따라 스크랩하고 保存할 수 있다.
- ⑩ 現在의 事件과 과거의 사건을 함께 다룰 수 있다.
- ⑪ 印刷媒體에 익숙해지므로 文字 情報를 읽는 習慣과 能力이 向上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新聞 資料를 통하여 첫째, 模倣 學習의 可能性이 있고, 둘째, 현재의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當面 問題의 解決點을 찾을 수 있으며, 셋째, 創意的인 再構成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손쉽게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教育的으로 再構成하여 학습에 이용한다면 신문이 갖는 現實性, 事件性, 周邊性, 共感性, 日常性, 普遍性 등 生動的으로 느끼는 점을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教科書의 단점인 사고·推理의 문제 해결 능력의 不適當한 면과 創意性, 生動感의 缺如面을 補充하여 주어 학생들에게 사고 경험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 道德的 價値判斷力 伸張에 유용한 자료로 신문은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서 신문 자료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교과서의 抽象的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면서 生動感 있게 教育活動을 전개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주고 綜合的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데도 유익하다

35) 한국신문협회(1993), 「신문과 교육」, 한국신문협회, p. 10.

고 할 수 있다.

## 2. 新聞活用教育의 意義와 道德科에서의 效用性

### 1) 新聞活用教育의 意味

요즘 우리 나라에서도 열린 교육이 급격히 擴散되면서 신문을 교육에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들 귀에는 '신문 활용 교육'이란 말보다는 'NIE'라는 말로 더 익숙하게 알려져 있다. 그러면 NIE 즉 신문 활용 교육이란 무엇인가? '신문활용교육의 개념은 신문을 대하는 사람마다의 생각과 각 나라의 상황 및 문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明確하게 規定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에 걸맞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문이라는 교육 매체의 特性과 長點을 최대한으로 이용해보자는 교육계의 必要性에다가, 텔레비전이라는 映像媒體의 등장으로 날로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의 독자가 될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한 명의 독자라도 더 確保하려는 新聞社의 戰略이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신문 활용 교육 (NIE : Newspaper In Education)은 '교육 속에 신문을 활용하자.'는 것으로 현재 북미, 유럽, 호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어 청소년들의 社會性, 의견 개진 및 判斷 能力 提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에 교육계, 언론계는 NIE 제도의 韓國的 土着化를 위해 외국의 NIE 제도, 신문 활용 프로그램 및 NIE의 장단점에 대한 사전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sup>36)</sup>

한장수는 "신문을 학습에 활용하여 신문을 친숙하게 하고 教育的 效果를 높이는 프로그램 또는 학교에 有用한 보조 교재와 교수 방법을 제공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미래의 신문 독자를 키우는 방법"<sup>37)</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허병두는 신문 활용 교육 (NIE)이란 "소박하게 말해 '신문을 가르치고 신문으로 가르치자'는 교육적 시도이다. 즉 '신문을 친숙하게 하고 학습에 활용하여 教育的 效果를 높이

36) 조성철, "신문은 살아있는 교과서", 「한국교육신문」, P. 5, 1995.4.12.

37) 한장수(1995), "신문을 수업자료로 이용하는 NIE", 「강원 교육 제150호」, 강원도 교육청, p. 79.

는 프로그램'이 바로 NIE이다. 이는 '살아 있는 교과서 (living textbook)'인 신문을 활용하여 열린교육, 21세기에 걸맞은 情報化 教育을 하자는 뜻으로 理解하면 무난하다."<sup>38)</sup>고 NIE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는 '신문을 학교 수업의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新聞社와 학교의 교사가 협력하는 신문의 교육적 활용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떻든 교육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신문 활용 교육이란 '신문이라는 교육매체를 통하여 소기의 教育目標를 達成하려는 努力'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 新聞活用教育의 重要性

신문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現狀과 엄격히 구별되는 組織體的 特性을 지니고 있다. 사건이나 미담 소식 등 뉴스를 수집, 가공하는 절차를 거쳐서 讀者에게 제공되기까지의 과정에서 基本的으로 公共性和 營利性을 지니고 있다. 또한 多衆의 관심이 쏠리는 새소식을 時宜適切하게 독자에게 供給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特性으로 들 수 있다. 김지용은 實際的인 特性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sup>39)</sup>

첫째, 活字라는 印刷 媒體를 통하여 不特定 多數에게 공급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紀錄性和 保存性이 보장된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讀者가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음은 물론 반복해서 接觸할 수 있다는 점이고, 넷째는 문자를 解得할 수 있어야 하며, 다섯째, 종이를 사용하고 또한 再活用的 價値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서 보듯이 新聞은 우리 靑少年들에게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無限定 노출되어 있다. 문자를 解得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문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情報과 知識을 獲得할 수 있다. 교과서의 내용을 補充해주는 정보가 있는가 하면 교과서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지식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우리들에게 敎訓이 될 만한 아름다운 미담 소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憤痛을 터지게 할 만큼 끔찍하고 참혹한 소식도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신문은

38) 허병두(1997), 「신문활용교육이란 무엇인가(NIE의 이해와 실제)」, 중앙M&B, p. 8.

39) 김지용(1996), 전계서, pp. 34~35.

'살아있는 교과서'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살아있는 교과서'를 感受性이 예민한 우리 학생들에게 교과서로서의 구실을 다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教育的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模倣心理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無限定 노출된 각종의 사건기사는 자칫하면 또 다른 범죄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과거에 얼마든지 있었다. 이는 신문을 올바르게 보고 그 내용에 대하여 올바르게 비판하는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빚어졌다고 보아진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道德的으로 올바르게 價値判斷을 하게끔하는 教育적 지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요한 신문 활용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教育的 效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첫째,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고 손쉽게 살아 있는 知識과 情報를 摺得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教科書만을 갖고 一方的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하면 이내 학생들은 싫증을 느낀다. 이와 같이 곧잘 싫증을 잘내는 학생들도 신문을 주면서 공부할 문제를 내주면, 훨씬 興味를 가지고 이전까지의 교과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신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 접근하다. 教育에서는 動機 誘發이 중요한 것이다. 알고자 하는 意慾이 생겨야 학습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盲目的으로 따라가는 학습이 되어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에게만 教育의 效果를 거두게 된다. 신문을 教育에 활용하면 이와 같이 學習興味를 유발시켜 주면서 살아있는 知識과 情報를 摺得하게 해준다. 신문에는 매일 매일 새로운 정보와 지식 및 소식들이 실려 있다. 비록 방송 매체보다는 速報性이나 生動感에서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보다 深層的으로 多樣하게 報道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앞질러 간다고 할 수 있다. 신문에는 정확한 문장이 있는가 하면, 現場感 있는 사진이 있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는 각종 도표나 그림도 있다. 그야말로 과거의 지식이 아닌 이제 갓 태어난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이 잔뜩 실려 있는 資料의 貯藏庫 역할을 한다. 현대는 초스피드의 사회이다. 책을 통하여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얻기에는 時間上의 制約이 따른다. 가장 빨리 정확한 지식과 손쉽게 접할 수 있게하는 신문이야말로 자료의 보고이면서 초스피드 사회에 걸맞는 學習 媒體이다. 따라서 신문을 제대로 보는 눈을 키워주는 신문 활용 教育의 중요

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문 활용 교육은 사회 현상의 理解增進과 바른 價値觀의 形成에 도움을 준다.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사건 기사에는 사건의 내용만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원인에서부터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내용까지 실려 있다. 學生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現實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려 준다. 現實 社會의 여러 가지 모습이 그대로 反映되어 나타나므로 複雜하고 有機的으로 엮힌 사회를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신문 활용 교육의 효과는 크다고 하겠다. 또한 학생들이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과 남의 입장, 즉 사회가 처한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가치관이 形成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바로 이 올바른 價値觀이 形成될 수 있도록, 주어지는 狀況에 대하여 道德的으로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있다.

셋째, 신문 활용 교육은 독서와 作文 能力을 키워 주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흔히 보면 책읽기를 즐겨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책읽기와는 전혀 거리가 먼 학생들도 있다. 책을 즐겨 잘 읽는다면 그 책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좋겠지만 책읽기를 싫어 한다면, 또한 읽고 싶어도 入試 準備에 바쁘다보니 시간이 모자라서 책을 읽지 못한다면 그 學生은 그 만큼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문은 시간의 制約도 별로 받지 않고 손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 요즘의 靑少年들처럼 책을 읽는 것보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더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신문을 통하여 문자를 대하게 한다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 된다. 어떠한 讀書과 作文 能力은 많이 읽을 때 향상된다. 映像媒體의 발달로 가뜩이나 책을 대하기를 멀리하는 靑少年들에게 신문이라도 들여다보는 습관을 길러 주는 일은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論理的인 思考力을 형성시켜 주는데도 신문 활용 교육은 도움을 준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중요하게 요청되는 능력이다 보니 대학 입학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여 다루는게 이 論理的인 思考力이다. 論理的인 思考力이란 학생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지식과 言語的인 능력을 연결시켜 학생 자신의 생각이 결들여진 글을 작성할 수 있는 能力을 말한다. 알고 있는 知識을 단순히 나열하기만을 해서 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신문에는 사실, 칼럼, 해설기사 등 논리적

인 사고력이 결여된 글들이 많다. 이러한 글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比較·分析하는 過程에서 論理的인 思考力을 키워가는 것이다. 신문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과 흥미있는 기사들을 통하여 多樣的 視각을 갖게 되고 窮極의으로 사물과 현상·사회·인간 등에 대하여 폭넓고 深層的인 사고를 활발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신문 활용 교육은 자율 학습 능력을 키워 준다. 신문을 보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학생들은 개인적인 好奇心에 의해서 신문을 보게 된다. 학생 자신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기 위해 積極的인 자세로 신문을 대하게 된다. 그 호기심에 대하여 의문이 풀렸을 때 기쁨은 크게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지적인 好奇心을 滿足시킨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아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게 되고 아울러서 學習하는 能力도 모르는 사이에 培養된다.

이렇게 볼 때, 신문 활용 교육이야말로 教科書 中心의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의 縮小版이며 歷史의 記錄物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知識과 情報를 얻게 해주고,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올바른 價値觀 形成에 도움을 주며, 讀書와 作文 能力을 키워주고 아울러서 論理的인 思考力을 形成시켜 주므로 그 重要性은 대단히 크다 하겠다.



### 3) 道德科 教育에서 新聞資料活用の 效用性

학생들은 실제 社會 속에서 여러 가지 道德的인 問題를 만나게 되는데 그 때 그 때에 적절하게 解決할 수 있는 능력, 일종의 道德的 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일이 매우 價値있는 일이 된다. 다시 말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道德的인 되는가를 判斷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즉 道德的 判斷 能力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 도덕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의 道德性을 학생들에게 길러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덕적 문제 해결의 節次와 方法이 되도록 도덕과 수업을 통해서 그대로 다루어져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健全한 道德性을 涵養하도록 도와주는 교과가 곧 道德科이다.

도덕과는 여러 교과 교육에서 獲得한 知識과 能力과 態度를 統合하여 人格 形成에 連結시켜 주는 教科統合的 機能과, 學校와 家庭 및 社會 生活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規範 相互間의 關係를 把握하여 하나의 統合的 價値 體系를 形成하게 하는 價値 統合的 機能을 통해서 道德性을 涵養시켜 주고 있다. 이에 따라 道德科의 教育 目標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基本 禮節과 道德 規範의 意味와 重要性을 理解시키고, 道德的 問題 解決에 필요한 思考力과 判斷力을 키우며, 스스로 바람직하고 合理的인 生活 態度로 도덕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道德性 形成의 기초를 다지며 사회 성원으로로서 갖추어야 할 人格的 資質을 기르게 하는데 強調點을 두고 있다.40)

따라서 도덕과의 학습 지도는 어떻게 하면 道德的 價値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주체적으로 자각하게 하고, 道德的 思考力 내지 判斷力을 신장 시키며, 또한 실천 동기를 부여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도덕 수업은 아무리 우수한 지도 기술을 지닌 교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해도 계획성 없이 卽興的으로 학습 지도가 이루어져서는 도덕성의 육성이라는 도덕과의 目標은 達成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主體的 學習을 통하여 道德性이 풍부하게 키워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실태 및 발달 상황에 입각해서 교재를 어떻게 제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도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때 교재로 제시되는 것이 주로 도덕 교과서와 생활의 길잡이인데, 문용린은 우리나라 道德科 教科書의 問題點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41)

제일 큰 문제는 도덕 교과서가 도덕성 함양에 적합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데 있다. 예컨대 도덕 교과서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나 도덕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제작되어야 하는데, 現行의 도덕 교과서는 '결코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한다. 도덕 교과서가 단지 읽고 외울거리만 제공한다고 하면 일반 '사회'교과서와 무엇이 다른가?

또한 教授 方法上으로 討論과 對話式으로 이끌어가는 교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

40) 교육부(1997), 전계서, p. 20.

41) 문용린(1996), "도덕·윤리 교육의 문제와 개선 방향", 「한국사회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진단과 처방」,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p. 220.



하고 知識爲主의 강의와 說教 爲主의 注入式 教育이 우리의 도덕 교육에 범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덕과의 교수-학습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겪는 애로는 다음과 같다고 했다.<sup>42)</sup>

1. 教科書의 內容과 현재의 社會 現實 사이에 乖離가 커서 그 가치 덕목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奉仕·犧牲·正直이 최고라고 배우지만 현실에서 그대로 행동하는 그들은 바보로 취급된다.
2. 教科書 內容이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며 動機 誘發이 안된다.
3.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거듭 반복된다.

道徳科 授業은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規範이나 가치를 指示的이거나 注入式으로 傳達해서는 안된다. 學生들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實踐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그러한 規範이나 價値들은 학생들의 생활 밖에서 찾는 것보다는 그들이 숨쉬고 있는 주변의 일상 생활 속에서 찾는 것이 더욱 效果的이다. 이렇게 볼 때 新聞에 나와 있는 기사는 學生들의 생활 속에 항상 露出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重要的 資料가 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도덕과 교수-학습에서 신문 자료를 잘 활용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가장 現實感 있는 주제를 가지고 多樣한 가치 葛藤 事態를 經驗할 수 있게 하며,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되고 아울러서 創意的인 思考力과 批判力도 길러 주는 一石三鳥의 教育效果를 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이야말로 教科書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내용의 사실들을 일깨워주는 훌륭한 보조 教科書의 구실을 다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新聞의 記事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일은 매우 뜻있는 일이다. 각종 매스컴이 발달한 요즘 매일 매일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 각종의 기사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價値 形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未成熟 段階에 있기 때문에 각종의 기사를 접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社會的인건 反社會的인건 간에 기사 내용을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模倣할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문에 보도 되고

---

42) 문용린(1996). 전계서, p. 20.

있는 기사의 내용을 分析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것을 그들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떠한 것을 버려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論議하고 思考할 수 있는 機會가 그들에게 요구된다. 그리고 그 機會의 提供은 교육을 주로 擔當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학습의 한 形態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3)</sup>

신문기사 내용에 대해 論議 活動을 거치는 過程에서 자기의 意見을 提示하고, 또 남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함으로써 자신의 價値判斷 能力은 伸張된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문은 教科書와 함께 補助 教科書로 學生들의 學習 動機 誘發에 크게 寄與하게 된다. 신문 마다에 실려지고 있는 각종의 사건 및 美談 事例들은 多様な 價値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기사들은 학생들에게 多様な 價値를 體驗하게 하고 그들 다양한 가치 가운데서 올바른 價値를 選擇하게 하는 道德的 價値判斷力을 向上시켜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한다. 또한 신문에는 社會生活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실려지고 있다. 사회면을 비롯한 지면마다에는 個人 倫理, 家族 倫理, 社會 倫理, 國家 倫理 더 나아가 통일에 관한 문제 등 多方面의 資料가 풍부히 담겨져 있다. 多様な 葛藤事態와 複雜한 社會 問題, 그리고 共同體 生活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일들을 重點的으로 報道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 많은 探究 資料를 얻을 수 있다. 특히 最近에는 각종의 知能的이고 악랄한 사건 사고들이 실려지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生命 尊重과 倫理, 環境과 倫理, 性과 倫理 問題 등을 新聞 紙上을 통해서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일 교육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急變하는 國際 情勢와 날로 변화되고 있는 南北 關係와 事實들은 教科書만을 통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신문은 時事性 있고 興味와 關心을 끌면서 여러 가지 가치가 내포된 풍부한 내용의 事實資料들을 提供해 주고 있어서 학생들이 관심있게 접근할 수 있다. 신문에 실려지는 모든 기사들은 道德的인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고 해도 寡言이 아니다. 이처럼 道德的인 價値를 包含하고 있는 신문의 다양한 기사야말로 학생들에게 활발한 討論의 機會를 提供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도덕과에서 신문은 그 教育的 活用 可能性이 매우

---

43) 양선석(1996), "언론매체의 기사를 활용한 가치관 교육", 「도덕윤리과 교육」 제 7호, 한국도덕윤리과 교육학회, pp. 77~78.

높다고 하겠다.

### 3. 新聞活用教育의 前提 條件

#### 1) 新聞活用교육시 유의사항

新聞活用교육은 道德的 價値判斷力, 思考力 등을 키워주는데 절대 도움이 되는 것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新聞活用 教育을 定着시키는데는 먼저 解決해야 할 어려움도 있다.

첫째, 新聞으로 인한 逆機能의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엄해영은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消化할 수 없는 否定的인 事件과 情報들이 新聞에는 날마다 보도되고 있어서 이 점이 오히려 逆效果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sup>44)</sup>고 지적하였다. 책속에 길이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나쁜 책을 보게 되면 오히려 어둠의 길만이 있게 되는 것처럼 新聞속에 詳細히 報道되고 있는 각종의 사건사고 내용들이 感受性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나쁘게 비춰져 投影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창 밝고 아름답게 자라나가야 할 어린 학생들이 社會의 어두운 단면만을 보고 모방을 하려고 한다든지 올바른 價値觀 形成에 逆機能으로 작용할 것에 대해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批判하는 能力을 키워주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判斷하여 行動하는 習慣을 항상 키워주어야 한다.

둘째, 新聞을 活用하는 教育은 어디까지나 수단 또는 방법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학생들은 新聞을 보라고 하면 부담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누구나 손쉽게 新聞을 대한다. 이처럼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는 자체로 끝나서는 教育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學生들은 재미있는 것을 좋아한다. 교사가 재미있는 授業을 하면 학생들은 잘 따라온다. 재미있다고 教育 效果가 無條件 좋은 것은 아니나 같은 내용이라도 재미있게 進行하는 授業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미있게 하면서 有益한 수업이 되도록 항상 무엇인가 생각할 과제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이 가게 된다. 물론 처음에는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문제를 주

44) 엄해영(1995), “新聞교육의 숙제와 역할”, 이정균, 「新聞으로 공부하자」, 도서출판 민, p. 4. 추천사 내용.

는 것이 좋다. 차차 익숙어져 갈수록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 원하는 學習目標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自己 主導的 學習이 되게 해야 한다. 自己 主導的 學習이란 知識이나 情報의 獲得에 一次的인 關心을 두고 目標을 스스로 決定하고 過程도 스스로 構成해 가며, 結果도 스스로 評價하는 것을 核心內容으로 하면서 자기 스스로 배우고 자 하는 것을 自己 主導的 學習이라고 한다.<sup>45)</sup>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가운데, 교육적 가치가 있는 學習課題를 發掘해서 그 가치를 判斷하는 힘도 길러지며 자기 創造의 힘도 키워진다. 학생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 스스로 공부할 問題를 選定하고 그것의 實踐 計劃을 세워 여러 가지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미래 사회의 能動的 人間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自己 主導的 學習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인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유시간에 신문을 보다 보면 자칫 장난스럽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려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自己 主導的 學習力을 키워주는 일은 매우 重要하다.

넷째, 어떤 記事는 新聞社나 記者의 偏見이 들어가서 公正한 教材로서 資格이 부족한 기사가 있으므로 이 점을 留意해야 한다. 모든 신문이 公共性과 客觀性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新聞社도 營利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신문사도 본의 아니게 商業主義와 偏見에 사로 잡힐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문 한 가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 신문을 比較하여 읽는 것이 基本原則이라고 하겠다. 그래야 편견의 馱도 피할 수 있고 多樣하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지식도 키워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學生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方向으로 신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려는 교사의 노력이 恒常 우선해서 뒤따라야 한다.

## 2) 論議中心의 學習을 위한 基本學習訓練案

도덕과 수업에서는 활발한 論議中心의 학습이 되어야 도덕과가 바라는 올바른 道德性의 涵養이 이루어진다. 도덕적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선택하는 능력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45) 한국교육출판(1998), 「NIE 열린수업」, 영진문화사, p. 13.

거치는 과정에서 더욱 키워진다. 따라서 도덕과에서 道德的 價値判斷力을 伸張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논의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 활발한 논의 활동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參與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論議 中心의 학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 학습 훈련이 잘 되어야 한다. 특히 發表力은 必須的이다. 좋은 발표는 세련된 발문에 의해 유도되어 나오므로 기본적인 발문 모델에 정하여 실행하면 좋다. 그리고 논의 학습에서 發表에 一貫性이 있도록 하고, 또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문 활동의 기본 학습 훈련안에 따라 수업을 진행시켜 가는데 效果的이다.

(1) 基本的인 發問 모델

교수-학습 현장에서는 發問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학습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논의 중심의 학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문이야말로 그 학습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활발한 발표가 밑거름이 되어야 논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아울러서 道德的 價値判斷力도 함께 길러진다. 그래서 <표 1>과 같은 기본적인 발문 모델을 정하고 수업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 基本的인 發問 모델

발문 종류	적용되는 경우	실제 발문의 예
직접 질문	물음에 답할 학생의 이름을 불러 먼저 지적한 후에 하는 질문으로, 적절한 의사를 지녔다고 생각되는데도 소극적이거나 용기가 없어서 참여를 주저하는 학생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하는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선우,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요?”</li> <li>“고요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li> </ul>
전체 질문	대답할 기회를 학급의 전원에게 주고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분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li> <li>“이 신문 기사에 나와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지 발표해봐요?”</li> </ul>

반대 질문	학급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사회자나 전체에게 질문을 하였을 경우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되돌려 던지는 질문	·“박영진은 사회자에게 이 토의의 목적이 무엇이나고 물었는데 장한별은 이 토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중계 질문	학생이 사회자나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왔을 때 사회자나 선생님이 다른 학생에게 그 질문을 돌려 던져주는 경우	·“송인영이 나의 이익도 되고 공동체의 이익도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물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도적 질문	토의의 초점이 흐려지거나 방향이 빗나갈 경우에 집중력의 분산 등으로 학습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	·“당번을 가위, 바위, 보로 정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당번을 정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 목적에 비추어서 정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2) 論議學習을 위한 發表 訓練案

道徳科에서 교사의 中樞的인 역할은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를 촉진하는 일이다.<sup>46)</sup> 따라서 道徳的 思考를 促進하기 위해서 교사는 中間的인 位置에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 학생들의 判斷이 곧 학생의 道徳的 水準을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認知하고 道徳的 水準에 대한 評價를 可及的 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立場을 表明할 때에도 教化나 注入이 아닌 教育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다시 말해서 道徳的 價値를 判斷하여 올바르게 선택하는 문제는 교사가 一方的으로 어떤 結論을 내려서는 안된다. '그것은 이렇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등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強要에 의해서 選擇해서는 內面化되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 相互間에 意見을 交換하는 過程에서 스스로 價値를 選擇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新聞에 나와 있는 記事를 보고 '왜 그러한 事故를 저질렀을

46) 김항운(1997), "도덕·윤리과 교수-학습에서 신문의 활용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 26.

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더 좋은 方法은 없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였을까?’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誘導하는게 필요하다.

또한 제시된 新聞記事에 자신의 意見을 提示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도 하면서 서로 거짓없이 論議 活動이 展開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와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면 상대방에게 質問이나 반박을 해보기도 하고, 修正해보기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의 意見이 定立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곧 가치를 올바르게 判斷하여 選擇하도록 도와주는 구실을 하게 된다. 이때 학생들의 사고가 올바른 方向으로 形成되지 않고 빗나갈 경우도 있다. 특히 教師는 思考가 올바른 方向으로 轉換될 수 있도록 誘導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동료들에게 항상 제시하고, 친구들이 발표한 見解가 항상 尊重되어지는 學級 雰圍氣를 造成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意見을 자유롭게 發表할 수 있도록 언제나 許容的인 마음으로 이끌어 나갈 때 교수-학습 분위기는 진지한 論議가 이루어지는 분위기로 가게 된다. 특히 성적이 뒤쳐지는 학생은 發表에서도 自信心이 없어서 可及的이면 參與를 안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勇氣를 북돋울 수 있는 配慮가 항상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發表하게 되어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 道德的 判斷이 이룰 수 있게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論議 活動을 위한 發表力이야말로 도덕과 교수-학습의 생명이다. 학생들의 발표가 없는 수업은 教師 主導에 의한 一方通行式의 注入式 授業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他意에 의해서 보다는 自意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신바람나게 움직여진다. 교사의 強要에 의한 행동보다는 자신의 바른 判斷에 의한 행동이 훨씬 바람직한 것이다. 수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바람직한 價値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道德性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道德科의 目標이다.

그래서 論議 活動이 활발하게 展開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發表하는 訓練이 必要하다. 발표력은 하루 아침에 키워지는 능력이 아니다. 이를 위해 <表 2>와 같은 論議學習을 위한 發表 訓練案을 마련하였다.

<表 2> 論議學習을 위한 發表 訓練案

區 分	發 表 要 領
基本 態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結論을 먼저 말하고 그 理由와 條件을 뒤에 簡略하게 말한다.</li> <li>•資料를 提示하며 하는 것이 더 좋고, 問題點과 分明하지 못한점을 분명히 밝힌다.</li> </ul>
意見이나 생각을 말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는 ~에 대하여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 ~하기 때문입니다.</li> <li>•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 같기 때문입니다.</li> <li>•문선호와 같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기 때문입니다.</li> <li>•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 理由는 ~하고 ~하기 때문입니다.</li> </ul>
補充이나 擴大 意見을 말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철수와 신선우가 생각한 內容을 整理해 보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li> <li>•조민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기 때문입니다.</li> <li>•저는 문명호의 생각에 대해 ~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기 때문입니다.</li> </ul>
修訂 및 反對 意見을 말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때문입니다.</li> <li>•~에 대하여서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 理由는 ~하기 때문입니다.</li> <li>•그 意見도 좋지만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하기 때문입니다.</li> </ul>
質問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質問이 있습니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說明해 주십시오.</li> <li>•왜 그렇게 되는지 그 理由를 알고 싶습니다.</li> <li>•신진철의 생각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에 대해 그 理由를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li> </ul>



## 4. 新聞 活用 教育의 實態

### 1) 外國의 境遇

NIE運動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1955년 아이오와주 데모인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文字接觸 頻度調査를 실시했다. 이 조사결과 30~4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교교실 이외에는 전혀 문자를 접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를 접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 역시 TV 등을 보는 시간에 비해서는 문자를 접하는 시간이 불과 3분의 1밖에 안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 新聞을 購讀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分家해도 계속 新聞을 구독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新聞을 구독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반대로 일생동안 新聞을 구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보고 데모인에 있는 데모인 레지스터(Des Moines Register) 신문사는 靑少年들이 活字를 기피하는 現狀은 극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그 해결방법으로 美國教育協會의 協力을 얻어 '教育속에 新聞을'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NIE운동은 미국 각지역은 물론 북미, 유럽, 호주, 일본 등 선진 각국으로 擴散되었다.<sup>47)</sup>

이들 여러 나라에서의 NIE 운동은 교육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었다. 전문가들의 科學的 檢證을 통해 確認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48)</sup>

첫째, 靑少年과 어린이들에게 社會性을 길러 주었다는 점이다. 新聞을 통해 자연스럽게 社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생활하게 되고, 社會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는 자세를 기르게 된 것이다. 둘째, 세상에는 多樣한 意見과 가치가 存在한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보다 폭넓은 人間性을 지니게 되었다. 셋째, 많은 사실과 의견 가운데 자신의 立場을 분명히 하고 자기의 主張을 당당하게 펼 수 있는 판단 능력을 訓練하게 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넷째,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것을 取舍選擇하고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情報 選別 能力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47) 홍원기(1993), "NIE도입을 위한 제언", 「신문과 방송 제274호」, 한국언론연구원, p. 41.

48) 안병훈(1994), "신문을 학교교육에 활용하자", 「교육월보 6월호」, p. 18.

NIE운동은 民主主義가 잘 定着되고 신문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1989년 國際新聞發行人 協會(FEIJ)의 조사에 따르면 NIE는 실시 국가 대부분에서 新聞協會나 그에 해당되는 조직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여기서는 先進國의 여러 나라 중에서 최초로 NIE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실태를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의 사례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1) 美國의 NIE<sup>49)</sup>

① NIE의 전개

NIE의 本質的 意味는 教育現場에서 신문이 이용되어 현실에 적합한 실용적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教育的 價値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피교육자들이 附隨的으로 신문에 대한 親近感, 재미, 有用性 등을 터득하여 미래의 신문 讀者로 社會化 될 수 있는 것이다. 독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위기에 처한 미국의 신문들이 이와 같은 부수적 효과의 可能性에 희망을 걸고 戰略的으로 추진한 것이 미국의 NIE 활동이다. 본격적으로 추진된 50년대 말부터, 최근에는 미국신문협회 회원사의 반수 이상, 전체 발행부수의 80~90%를 점하는 신문사들이 NIE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NIE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에서 재미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NIE를 경험한 사람들의 新聞熱讀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大衆媒體의 社會化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모들의 영향이 미약하고, 신문이 없는 가정에서 성장하여 매체의 社會化에 불리한 사람들에게 NIE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들도 NIE가 학생들의 글읽기, 쓰기, 讀解力, 批判的 思考의 強化, 社會問題 認識 등 現實의 情報과 知識의 習得에 상당한 학습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국 NIE의 이와 같은 성공은 사회 제도로서의 신문과 교육이 開放性, 進就性, 自律性 등의 측면에서 서로 비슷한 水準으로 成熟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또한 NIE의 개념을 一方的으로 교육에 導入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문은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은 신문의 관점에서 NIE 개념에 接近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相互提携

49) 최선열(1995), "미국의 NIE", 『신문과 방송 제290호』, 한국언론연구원, pp. 90~93. 요약.

關係가 가능하다.

## ② 美國 新聞과 教育의 特性

미국 신문의 특성 중 NIE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의 지역 중심성이다. 대부분의 미국 신문들은 NIE를 통해 학교에 공급하는 부수가 發行部數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소규모이다. 이러한 신문들은 보도 편집 등에서 철저하게 지역주의를 지키며 지역 사회에 대한 奉仕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실천하고 있다.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미국 신문들의 NIE 활동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NIE 활동이 미국 신문 산업의 商業主義的인 動機에서 추진된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유 언론에 대한 信念과 矜持, 그리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지역 신문에 대한 애착과 신뢰가 또한 美國新聞의 特徵이다. NIE 활동은 이러한 미국 신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NIE의 기본 취지의 하나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의 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시키는 것이며 신문사 주도의 NIE 운동에 학교가 好意的으로 참여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주민들의 信賴를 반영하는 것이다. 학부모의 發言權과 교사들의 자율성이 강한 미국의 教育制度下에서 신문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신문사가 주도하는 NIE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교육 제도 역시 NIE에 好意的인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신문 처럼 미국의 교육도 地域中心的이어서 우리와 같은 中央集權的, 官僚的인 統制로 교사나 학생들이 시달리지 않는다. 교사들은 학군별로 상당히 자율적인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教授法이나 教材 開發의 改革이 比較的 쉽게 이루어진다. 또한 우리 나라와 달리 上級學校 進學을 위한 과열 경쟁으로 학교 교육이 荒廢化되지 않고 매우 正常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現實的, 實用的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인 신문은 사실상 그들의 교과 과정에 필요한 道具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NIE는 言語, 技術關聯 科目 이외에 地理, 歷史, 國內外 政治, 經濟, 産業 등의 사회 과목들은 물론 數學, 科學, 保健, 安全教育, 職業教育, 그리고 藝術, 宗教, 家庭, 娛樂 등 多樣한 主題에 適用되고 있다.

### ③ NIE의 成功 要因

미국과 같은 教育 環境에서는 NIE가 교사들에게 强要되기 힘들며 대체로 교사 개개인의 關心, 能力, 熱誠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문사들은 교사들에 대한 동기부여, 資質 向上을 위해 수시로 諮問을 해주고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대학이 주관하는 教師 再教育 過程이나 大學院 過程에 獎學金을 提供하여 교사들의 教育 欲求를 充足시켜 주고 있다.

### ④ 挑戰받고 있는 美國의 NIE

현재 미국의 NIE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컴퓨터 情報 通信網에 連結되어 있고 멀티미디어 施設이 完備되어 있으며 유선 방송업자들이 NIE와 같은 개념으로 각급 학교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어, 학생들은 새로운 멀티미디어 環境에서 질 좋은 교재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新聞産業은 學界와 함께 NIE의 새로운 소재와 교수법의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2) 英國의 NIE<sup>50)</sup>

영국의 NIE는 지난 1984년 新聞協會(Newspaper Society)의 주도 아래 시작되었다. 미국에 비해 本格的인 新聞 活用 教育의 歷史는 길지 않지만, 1997년 8월 현재 약 700여 개의 新聞社가 NIE 프로그램을 실시할 정도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 협회 안에 NIE 사업을 담당하는 NIE 小委員會가 組織되어 新聞社로부터 財政的인 支援를 받아 각종 NIE 프로그램을 活性化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학교와 신문사, 지역 사회 사이의 連繫體制가 잘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영국의 NIE는 덜 상업화되어 있으며, 신문의 가치가 전교과를 통하여 교실에서 立證되는 데 焦點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미국과는 다르다. 또한 인터넷에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NIE 사이트를 開設하며 情報化 時代에 발빠르게 適應하고 있다.

구체적인 NIE 活動 形態는 여러 가지이다. 가장 基本的인 形態로는 ▷지방 신문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지방 신문을 媒體 學習에 활용하기, ▷학교 신문 또는 학교 지면이나 부록 만들기, ▷인터넷의 전자 신문 활용하기 등을 꼽을 수

50) 허병두(1997), 전제서, pp. 14~16.

있다. 또한 신문을 學習資料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교재를 교사들과 함께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특히 科目別로 신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考案된 교재와 함께 신문 기사의 작성과 편집 등 실제 신문 제작을 위해 필요한 교재들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발간되고 있다.

英國 新聞協會는 교사들의 워크숍을 통해 >신문과 관련된 갖가지 교육 자료를 만들고 >새로운 NIE 활동을 위한 자료를 考案하며 >다른 교사와 經驗을 共有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각종 회의를 마련하고 있다. 1989년 이후부터는 全國的規模의 정기적인 NIE회의를 매년 주최하고 있다. 지난 1992년부터 매년 10월 초 일주일을 NIE주간으로 정하고 NIE를 活性化하기 위한 全國的인 行事를 實施하고 있다. 특히 1993년의 NIE 주간에는 어린이들의 독서에 父母가 參與하자는 主題의 行事(Reading Together)를 열고 모두 네 권의 '讀書 旅券(Reading Passport)'을 開發, 普及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에게 많은 呼應을 얻었다. 독서 여권이란 약 18쪽으로 구성된 여권 크기의 책인데 어린이들이 地方 新聞을 이용해 가정이나 교실에서 쉽게 作成할 수 있는 15개의 讀書 課題로 構成되어 있다. 최근에는 미국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NIE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 (3) 日本의 NIE<sup>51)</sup>

일본의 NIE는 비교적 最近에 시작되었다. 일본은 주로 美國의 NIE 활동을 모델로 NIE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1947년에 설립된 일본신문협회가 중심이 되어 NIE의 導入을 추진해왔으며 1988년에는 NIE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주로 >教育現場에서 NIE를 실천할 때 필요한 가이드 북 시리즈를 발간하고,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에게 의뢰해 실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NIE에 참여하는 신문사들 간의 營業 競争을 防止하고 학교에 配付되는 신문의 販賣와 配定을 責任지는 方向에서 展開되고 있다. 특히 1989년부터 NIE 교육의 토대를 쌓기 위해 5년간 실시한 실험 프로젝트는 일본의 文化的·教育的 環境에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일본 전역에서 適用될 수 있는 實踐的 모델로 採擇되었다. 1992년에는 최초의 NIE 세미나가 新聞協會 主催로 열리기도 하였다.

일본의 NIE는 '젊은 세대가 신문과 인쇄 매체에 興味를 잃어 가는 傾向에 對應

---

51) 허병두(1997), 전계서, p. 16.

하고 21세기를 향한 장기 프로젝트로서 새로운 세대의 신문 독자를 육성하자는 것(일본 신문 협회)'을 목적으로 삼는다. 또 NIE를 새로운 현대 교육이 지향하는 '社會의 變化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을 育成하는데 適切한 교육 활동으로 重要視하고 있다.

일본 신문 협회는 NIE가 교육적으로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는 목적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신문을 통해 사회에 관심을 지니며,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을 자신의 문제로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다. (社會性)
- ② 사회에는 多様な 意見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가치의 多様성을 깨달을 수 있다. (人間性)
- ③ 많은 事實과 의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의견이나 판단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自主性)
- ④ 많은 情報 가운데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거나, 事實과 眞實을 가려 낼 수 있다. (情報 處理 能力)
- ⑤ 未來의 '바람직한 讀者', 즉 신문을 읽을 뿐 아니라 '批判的으로 읽을 수 있고' 신문으로부터 배울뿐 아니라 新聞을 育成하는 독자가 된다.

## 2) 우리 나라의 實態

우리 나라에서도 요즘의 學校現場에서는 전국적인 열린 교육의 擴散과 함께 신문을 教育的으로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앞에서 외국의 상태에서 살펴 보았듯이 先進國에서는 이미 NIE 운동이 활발히 進行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뒤늦은 편이다. 1994년에야 비로소 韓國言論 協會의 주관 아래 NIE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면서 우리 나라에도 신문 活用に 대한 교육이 대중에게 소개되었으니, 한창 뒤늦은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뒤늦은 출발이었지만 교과서 속의 지식에 의한 入試 爲主의 우리 教育 現實 때문에 신문 한 줄에도 눈을 돌리지 못하던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입학 제도의 改善과 함께 NIE에 대한 관심은 幾何級數的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教科書 爲主의 暗記式·注入式 學習만으로는 새로운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大學別 論述 考査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創意力과 思考力을 중요시하는 교육만이 다가오는 21세기의 국가 생존 전략과 발을 맞추는 길임을 깨닫게 되면서 신문을 교육에 활용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은 열린 교육의 열풍과 함께 自然的으로 擴散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 과정의 충실한 구현을 위해서는 교과서 못지 않게 보조 教科書의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신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教育 現場에서 呼應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NIE 운동은 외국의 경우처럼 신문 협회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신문사와 교육 현장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이 외국에 비해서 미흡한 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신문 협회가 아닌 개별 신문사이지만 NIE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新聞社가 있다는 점이다.

NIE를 전개하는 국내의 언론 매체로는 1997년 말 현재 中央日報와 朝鮮日報가 대표적이다.<sup>52)</sup> 특히 중앙일보는 1995년 봄에 국내 최초로 신문 활용 교육을 集中的으로 報道하면서 NIE가 빠르게 普及되고 擴散되는데 큰 役割을 하고 있다. 주로 국내 사례와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외국 사례들을 소개하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各種 研修와 行事들을 實施해 왔다. 특히 교사 연수 참여자들 가운데서 전문 강사를 30여 명 정도 양성했으며, 1997년 3월에는 교사 연구모임을 발족시켰다. 뿐만 아니라 '신문, 살아있는 교과서'를 비롯하여 연수 교재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다. 1997년 5월에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10월에는 제1회 전국 NIE 대축제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끝난 바 있다.

조선일보는 좀 더 늦은 1996년부터 NIE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린이에게 인터넷을' 운동을 펼치다가 1997년 3월부터 인터넷 전자 신문 활용 교육으로 방향을 바꾸고 5월부터는 '키드넷 NIE'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련 기사들을 주1회 정도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 비해 국내 신문사들의 참여도는 아직 그리 높지 않은 편이지만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신문 활용 교육의 效果性을 認識하고 많은 교사들이 NIE를 시도하고 있어서 21世紀를 對備하는 教育으로서 그 성과도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

52) 허병두(1997), 전계서, pp. 12~13.


## IV. 道德的 價値判斷力 伸張을 위한 道德科 學習指導에서의 新聞資料 活用

### 1. 道德科 指導要素에 따른 新聞記事 選擇

#### 1) 道德科 生活 領域別 學年 目標 및 指導 要素

도덕과에서 效率的인 教授-學習指導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단원 또는 그 시간에 다루어야 할 指導要素를 正確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에 알맞은 學習計劃을 세우고, 또 적절한 學習資料도 投入할 수 있다. 그냥 막연하게 도덕과 시간에 학습지도에 임하게 되면 국어과 학습지도에서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과 같은 시간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므로 교재를 正確히 분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는 6학년 도덕과 학습지도에서 다루어야 할 ①個人 生活, ②家庭·이웃·學校 生活, ③社會生活, ④國家·民族 生活의 각 영역별 학년 목표 및 指導 要素를 抽出하였다.

個人 生活, 家庭·이웃·學校 生活, 國家·民族 生活의 4개 領域別로 抽出된 指導 要素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表 3> 生活 領域別 學年 目標 및 指導 要素

생활영역	학 년 목 표	지 도 요 소
개인생활	개인의 도덕적 성장에 관련된 문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사고력과 가치 판단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인격 형성의 기초를 다지게 한다.	자주 (적성에 알맞은 일과 앞날에 대한 설계)
		성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
		절제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실천 의지 (옳은 신념과 꾸준한 실천)



가정·이웃·학교 생활	가정·이웃·학교 생활에서 야기되는 도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인간 관계의 기초를 다지게 한다.	가정 예절 (예절의 정신과 형식)
		관용 (사랑과 자비의 마음)
		향토애 (고장의 발전에 협력하는 태도)
		경애 (손아랫 사람에 대한 사랑과 웃어른에 대한 공경)
사회생활	민주 시민 사회의 도덕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공공 질서 (법의 정신 이해)
		공익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간의 조화)
		공정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려는 자세)
		협동 (공동체 의식과 참여하는 자세)
		민주적 절차 (공정한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존중)
국가·민족 생활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통일 (통일을 위한 노력)
		국가애 (살기 좋은 나라)
		민족애 (민족의 긍지와 사명)
		인류애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

## 2) 單元別 指導 內容과 必要한 新聞 資料의 內容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道德的 原理나 規範의 合理性을 理解함으로써 日常生活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를 올바르게 判斷하고 選擇하며, 實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內容들이 選定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教科書와 補助教科書인

생활의 길잡이에도 관련되는 例示資料가 收錄되어 있다. 그러나 한정되어 있는 교과서의 내용만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學習資料가 投入되면 그 만큼 학생들의 興味와 關心度는 높아지게 마련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문의 각종 기사는 알맞게 관련지워서 함께 제시하면 손쉽게 추가의 學習效果를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과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신문 기사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살펴 보았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表 4> 單元別 指導內容과 必要한 新聞 資料의 內容

단 원	생활영역 지도요소	지 도 할 내 용	수집할 신문 기사 내용
1. 나의 삶. 나의 일	개인생활 (자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준비로서 미래에 대한 설계와 적성의 중요함을 알기</li> <li>*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택하는 것의 중요성 알기</li> <li>*자신의 적성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조사하기</li> <li>*나의 꿈을 발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능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여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담 사례</li> <li>*여러 가지 직업관련 자료</li> <li>*성공한 삶에 관한 기사</li> <li>*적성에 맞지않은 직업을 가졌다가 진로를 바꿔서 그 분야에서 성공한 미담사례</li> </ul>
2. 최선을 다하는 생활	개인생활 (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 하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태도</li> <li>*힘든 특별 구역 청소를 꾸준히 해냄으로써 얻은 좋은 결과를 통해 본 받을 점 살펴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 맡은 역할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례</li> <li>*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히 노력하여 성공을 거둔 사람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li> </ul>

<p>3. 올바른 예절 생활</p>	<p>가정·이웃·학교 생활 (가정 예절)</p>	<p>*예절의 정신이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올바른 예절 생활임 *행할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예절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인지 살펴보기 *지나친 사양과 예절과의 관계</p>	<p>*예절은 혼자만에게는 필요없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남을 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p>
<p>4. 사랑과 자비</p>	<p>가정·이웃·학교 생활 (관용)</p>	<p>*관용의 덕을 지니면 우리의 삶은 훨씬 밝고 따뜻하며 맑아질 것임 *석가와 예수의 가르침을 통하여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깨우치기</p>	<p>*원한 관계에서 저질러진 살인사건이나 그와 비슷한 범죄 기사 *남을 위하여 사랑을 항상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p>
<p>5. 법을 지키려는 마음</p>	<p>사회생활 (공공 질서)</p>	<p>*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도덕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임을 알기 *법의 없을 경우를 생각해보며 법의 필요성 알기 *규칙을 잘 지키려는 다짐</p>	<p>*법을 안 지켜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사건 기사 *교통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운전기사 이야기</p>
<p>6. 우리 모두에 이익을 위하여</p>	<p>사회생활 (공익)</p>	<p>*사익과 공익의 조화의 중요성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경우의 해결 과정을 알아보기 *국가 정책과 지역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해결방안 생각해보기</p>	<p>*지역 이기주의 현상으로 오수처리장이나 오물쓰레기장 등의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여 애쓰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선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 농성</p>

7. 정의로운 사회	사회생활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사회의 모습과 정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일</li> <li>*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정의 사회임을 알아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li> <li>*공공 질서를 잘 지키는 내용이나 잘못 지키는 내용에 관련된 기사</li> </ul>
8.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	국가·민족생활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기</li> <li>*등산을 하는 것과 통일을 위한 노력의 유사성을 살펴봄으로써 통일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li> <li>*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 민국을 찾아 귀순하는 북한 동포 이야기</li> <li>*남북한 관련 기사</li> <li>*이산 가족들의 슬픈 이야기나 상봉하는 장면</li> </ul>
9. 살기 좋은 나라	국가·민족생활 (국가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기 좋은 나라의 조건 알기</li> <li>*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 조사하기</li> <li>*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도 필요함을 알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나라의 자랑 거리, 좋은 점을 소개하는 기사</li> <li>*IMF체제하에서의 우리 국민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례</li> </ul>
10. 진정한 가치	개인생활 (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적 가치의 소중함 알기</li> <li>*절제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려는 마음 갖기</li> <li>*우애깊은 형제의 이야기를 통하여 정신적 가치의 우월함 살펴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적으로 고결한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li> <li>*소비절약에 관한 기사</li> <li>*절약정신을 몸으로 실천하고 장학금으로 거액을 사회에 기탁한 분의 기사</li> </ul>

11. 실천하 는 생활	개인생활 (실천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념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의 의미 알기</li> <li>*꾸준히 실천할 때 성과가 있음을 알기</li> <li>*학교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을 살펴보고 반성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념과 의지로 꾸준히 노력하여 성과를 거둔 사례를 통해 꾸준한 실천의 중요성을 알아보기</li> <li>*목표를 세워 꾸준히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li> </ul>
12.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가정·이 웃·학교 생활 (향토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장에 대해 자부심과 애착심을 가져야 함</li> <li>*자신의 노력으로 자신과 고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기</li> <li>*고장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 고장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봉사하는 미담 사례</li> <li>*애항심을 발휘하여 고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야기</li> </ul>
13. 사랑하 고 공경하 며	가정·이 웃·학교 생활 (경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랑과 공경의 뜻과 중요성 알아보기</li> <li>*진정한 웃어른 공경에 대하여 알아보기</li> <li>*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웃어른 공경하는 마음을 다짐하고 실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행심이 뛰어난 선행사례</li> <li>*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랑과 공경을 실천하는 사례</li> </ul>
14. 더불어 사는 세상	사회생활 (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 알기</li> <li>*나부터 양보하고 협동하는 적극적 자세의 중요성 알기</li> <li>*공동체를 위해 협력하고 참여할 일 알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만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 소식</li> <li>*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미담 사례</li> </ul>

15. 공정한 절차	사회생활 (민주적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한 절차의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기</li> <li>*공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반성하여 보기</li> <li>*학급회의에 대해 평가해 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한 절차를 어겨서 일어난 사건 소식</li> <li>*여러 가지 회의 모습</li> </ul>
16. 조상의 얼	국가·민 족생활 (민족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상의 얼을 알고 계승해야 함</li> <li>*민족 문화유산에 대하여 바람직한 태도 갖기</li> <li>*민족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점 알아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를 도굴하거나 훔쳐서 외국에 팔아버린 사례</li> <li>*여러 가지 문화재를 잘 보호하는 미담 사례</li> </ul>
17. 세계 평화를 위하여	국가·민 족생활 (인류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에 대해 알아보기</li> <li>*인류 공영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단체와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의 곳곳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li> <li>*세계 평화 및 인류 공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소식</li> </ul>

## 2. 餘裕時間活用을 통한 新聞資料의 教材化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도덕과 수업 시간이 주당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1시간 만으로 충분히 道德的 價値判斷力을 伸張시키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正規 教科 時間이외의 餘裕時間을 活用하여 이를 補完할 수밖에 없다. 신문은 각 가정마다에서 대부분이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도록 하면, 줄어든 시간 만큼 補完할 수 있고 학습에도 더욱 興味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요즘의 초등학생들은 각종의 학습문제지 풀기와 몇 군데씩의 학

원 수강에다 심지어는 課外工夫 등으로 知識爲主의 학과 공부에는 싫증이 나있다. 그런데 아침자율학습 시간마저 공부를 강조하면 무척 흥미를 잃고 마지못해 따라한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發生되는 갖가지의 事件事故 消息이나 美談 消息을 싣고 있는 신문은 魅力있는 교재가 된다. 이를 교육적으로 이용하여 정규 도덕과 학습 시간이 아니더라도 道德的 價値判斷力을 伸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매우 뜻있는 일이다.

여기서 餘裕時間이라 함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나서 하교할 때까지의 시간중에서 정규 수업시간을 뺀 나머지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登校하고서부터 아침 學級朝會 전까지의 시간을 위주로 하겠다. 다시 말해서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말한다. 이 시간에 활동하는 주된 내용은 可及的이면 자유스러운 雰圍氣 속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新聞과 접하게 하는 것이다. 知識爲主의 일반교과에서처럼 정답을 요구하는 활동도 아니고 興味爲主로 부담감없이 신문을 대하게 한다. 이 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것도 스스로 積極性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므로 훨씬 참여율도 좋고 學習效果도 모르는 사이에 올릴 수 있다.

우선 신문 기사 자료를 教材化하는 作業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探究課題를 주어 調査活動을 하게도 하고, 新聞記者가 되었다고 가정해서 직접 신문 기사를 써보게도 한다. 이와 같이 자투리 시간에 作成된 여러 가지 教材는 바로 도덕과 교수-학습 시간에 投入되어 活用될 수 있으므로 不足한 道德科 時間을 충분한 도덕과 시간으로 바뀌게 하는 셈이다. 또한 아침 등교가 늦은 학생은 가정에서 과제로도 조사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쉽고 흥미있게 接近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는 셈이 되기도 한다.

이 시간에 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 教材化를 위한 新聞記事資料 選定の 基準

單元別로 학습 지도 내용에 맞춰서 어떤 신문 기사가 자료로 필요한 지를, 앞에서 調査한 내용에 따라 신문 기사를 選定함에 있어서 그 基準은 다음과 같다.

(1) 可及的 어린 학생들 水準에 맞고 經驗과 密接하며, 理解하기 쉬운 내용으로 選定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가르치고자 하는 학생들 수준에

어울리지 않고 너무 어려운 것을 선정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내용이 어렵지만 꼭 選定해야할 必要性이 있는 내용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학생들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어려운 말은 쉽게 풀어주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나 영어 표현이 나오면 한글로 고쳐주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2) 도덕과 교육 과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한다. 앞에서 교육과정에 맞춰 알맞다고 제시된 내용과 같은 기사를 선정한다. 그러나 교과 내용과 연관되는 것들로만 한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참신한 정보는 얼핏보기에는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 중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3)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규범이 드러나 있어서 학습이 가능한 것으로 선정한다. 어린 학생들이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여러 가지 규범이 혼합된 것보다는 단순하게 한 가지 규범이 드러나 있는 것이 실제 학습에 이용하기 쉽다. 시간적 여유가 허락한다면 학생들 수준차를 고려하여 능력별로 적당한 기사를 선정하면 무척 효과적이다. 앞으로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수업이 시도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변화추세에 미리 맞춰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4) 도덕적 가치판단력 신장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우선한다. 대부분의 신문 기사들이 도덕적 상황과 관련되는 것들이므로 선택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연구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중심으로 자료를 고르고 제작하는 것이 좋다.

(5) 부정적인 사건사고 기사보다는 미담 사례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신문에는 미담 사례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사고 기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담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앞에서 언급했던 신문활용 교육의 역기능적인 면을 보완할 수 있다.

(6) 학생 스스로 선정한 내용도 같이 활용한다. 오히려 학생 스스로 선정한 것이 더욱 흥미있게 활용될 것이므로 더욱 권장한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스스로 선정한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7) 학생들의 관심을 최대한으로 끌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최신 자료로 준비한다.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또한 관심도 많다. 학생들도 신선한 뉴스에 더 많은 흥미를 보이므로 가급적이면 최신 뉴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2) 新聞記事資料 選定 方法

NIE 자료란 신문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를 말한다. 신문 자체가 무궁무진한 NIE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심있는 기사를 스크랩하는 습관을 교사나 학생 모두가 가져야 한다. 사전에 준비하려면 공부할 내용을 미리 알아야 하므로 예습하는 습관도 키워져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 학습에 이용할 신문 자료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교사가 직접 선정하여 제시해주는 방법과 학생 스스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의 節次와 長短點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新聞資料의 選定 方法에 따른 節次와 長短點

구분	교사가 선정하는 방법	학생 스스로 선정하는 방법
방법	학습할 내용에 맞춰서 자료로 알맞은 신문 기사를 교사가 미리 선정하였다가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제시해주는 방법	학습할 내용만 예고해 주면 학생들이 스스로 알맞은 신문 기사를 찾아서 서로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학습 자료로 선정하는 방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할 문제 알려주기</li> <li>* 관련된 신문기사 제시</li> <li>* 문제해결 방법 모색하기</li> <li>* 조별로 토론하기</li> <li>* 발표하고 전체적으로 토론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할 문제 사전 제시하기</li> <li>* 알맞은 신문기사 찾기</li> <li>* 문제해결 방법 모색하기</li> <li>* 조별로 토론하기</li> <li>* 발표하고 전체적으로 토론하기</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를 구성하기가 쉽다.</li> <li>* 학습에 적용하기가 쉽다.</li> <li>* 시간이 절약된다.</li> <li>* 교사의 의도대로 학습이 진행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 학습으로 다수의 학생이 참여 하기 때문에 협동심이 키워진다.</li> <li>*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li> <li>* 생각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므로 사고를 더 많이 할 수 있다.</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중심의 자료이므로 문제지를 해결하는 느낌이 든다.</li> <li>* 획일적인 수업이 되기 쉬워 다양성이 모자라다.</li> <li>* 교사 중심으로 수업이 전개되기 쉽다.</li> <li>* 다른 학습준비를 할 수 있는 교사의 시간을 빼앗는 결과가 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이 많이 걸린다.</li> <li>* 사전 과제 제시가 있어야 한다.</li> <li>* 한 가지 신문으로 학습 문제를 해결 하기가 힘들다.</li> <li>*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지도가 뒤따라야 한다.</li> </ul>
----	--	--

### 3) 新聞記事資料의 教材化 過程

도덕과 시간 배당이 종전의 주당 두 시간에서 한 시간으로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부족한 교수-학습 시간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학습자료가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도덕과 교수-학습시간에 사용하는 자료라고 하면 고작해야 例話資料가 대부분이다. 그나마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實情이다. 특히 요즘의 학생들은 靜的인 것보다는 變化無雙한 것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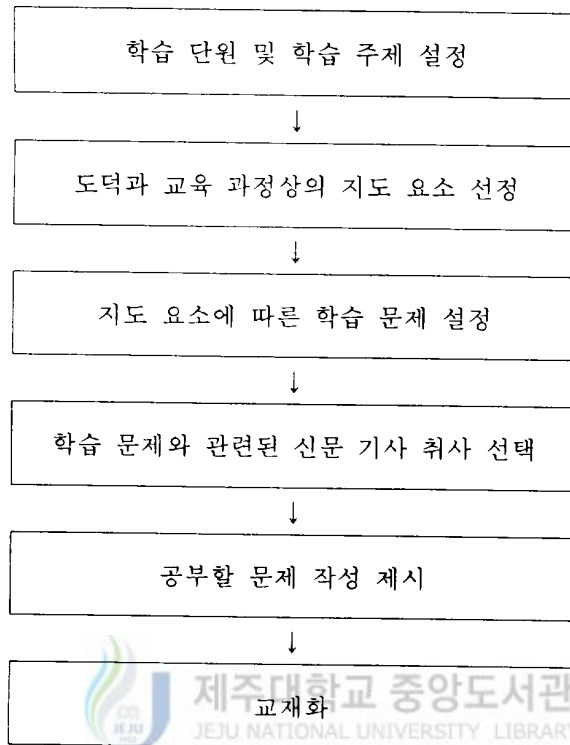
그러므로 資料가 없는 학습이란 흥미와는 거리가 먼 교수-학습시간이 될 것이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關心을 끌 수 있는 활동을 줄 필요가 있다. 정적인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움직이는 활동의 시간을 提供하는 것이다.

따라서 餘裕時間을 이용하여 도덕과 교수-학습시간에 쓸 수 있는 신문기사 자료를 교재화하는 일은 一石二鳥의 效果를 올릴 수 있다. 이 시간에 제작된 신문기사 자료는 학생들의 學習意慾 鼓吹와 動機誘發을 위해 매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좀더 효과적인 수업을 하려면 體系的으로 NIE 학습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룹별로도 하도록 하는데, 조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가치를 체험하게 한다. 이를 위하여 평상시 스크랩 해두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두면 스크랩 해둔 것과 당장 필요한 내용에 맞는 기사를 선정하여 教材化할 수 있으므로 좋다.

이와 같이 效果的으로 學習資料를 만들 수 있도록 도덕과 교수-학습지도에 필

요한 신문 기사 자료를 選定하여 教材化 하기까지의 절차는 <도 1>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좋다.

<도 1> 신문 기사 자료의 教材化 과정



#### 4) 新聞記事資料를 活用한 探究課題提示

과제 학습 방법의 훈련을 위해서 일정한 樣式을 마련해주고 여유시간에 학교 또는 집에서 해결해오게 하면 교사가 직접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自律的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서 效果的이다. 앞에서 제시한 신문기사 자료의 教材化 過程에 따라 주어진 양식에 맞도록 학생들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해결해온 探究課題를 가지고 도덕과 수업 시간에 논의 활동을 하면 훨씬 시간적으로도 이익이고 학생들의 발표 參與率도 좋기 때문에 교사가 바라고자 하는 학습목표의 도달에 충실할 수 있다. 학생들이 탐구해오도록 마련한 양식은 <표 6>과 같다.

〈表 6〉新聞 探究 課題

신 문 탐 구 과 제				
날 짜	199 년 월 일	요일	이 름	
신 문 명		면	보도 일자	
기사 제목			지도 요소	
관련 단원				
기 사 내 용			나의 생각 (본 받을 점이나 거부할 점)	
(원본 또는 복사본을 부착하거나 내용을 간추려 쓰도록 한다.)				
			나의 각오	

5) 나도 新聞記者-내가 쓴 新聞記事

학생들에게 신문 기사를 직접 써보게 한다. 학생들의 자신, 가정, 이웃, 지역사회, 학교 등 생활 주변에서 보고 듣는 미담이나 사건 소식, 고발하고 싶은 내용 등을 자신이 직접 기사화 해 봄으로써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사회 현상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바르게 받아 들이는 眼目を 키워 준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될 때 느껴지는 심리 현상은 主觀的으로 느낀 바를 綜合하여 체제를 세우는 방법에서 갈등의 과정과 마음의 변화 과정을 밝게 되어 바람직한 道德的 價値

判斷力이 길러 진다. 이러한 과정을 연속적으로 자주 거치게 되면 道德的 價値判斷力은 더욱 伸張되는 것이다.

이 신문 기사 쓰기 활동은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綜合的으로 가치 판단의 과정을 거치게하여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게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1) 기사 쓰기에서 事前 指導할 내용

- ① 記事화 할 내용을 잘 생각하여 정하기
- ② 選定한 내용에 나타난 道德的 價値 要素는 무엇인지 찾아보기
- ③ 자랑할 일, 고쳐야 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 ④ 當事者의 立場에서 葛藤 事態를 예상하여 쓰기
- ⑤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이상의 내용을 具體的으로 쓰기
- ⑥ 자신의 意見을 나타내며 자기의 다짐을 기록하기

(2) 新聞記事 쓰기 지도에서 留意할 점

- ① 쓰는 자체가 즐겁고 신이 나도록 하여야지 너무 強壓的으로 쓰게 해서는 곤 싫증을 느끼게 된다.
- ② 客觀的인 事實과 主觀的인 判斷이 정확하게 거짓없이 나타나도록 한다.
- ③ 처음에는 정해진 樣式을 나누어 주어 부담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④ 완성된 기사는 發表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⑤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듣고 자신의 見解도 발표하게 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준다.
- ⑥ 발표 후에는 게시판에 쓴 기사 내용을 게시하여 自信心을 심어 준다.

(3) 내가 쓴 신문 기사의 예

학생들은 무엇이든지 막연하게 써오게 하면 아예 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약간의 조건을 제시하면 그런대로 해보려고 接近하다. 그래서 신문기사 쓰기도 학생들이 해보려는 意慾이 생기도록 할 必要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比較的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성 양식을 마련해 주면 좋다. 한 학생이 실제로 썼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新聞記事 쓰기 樣式

나 도 신 문 기 자			
기 자 명	김 수 영	사건발생일시	1997. 12. 16. 13:10
발 생 장 소	우리 교실 옆 승강구 복도	가치 요소	공공 질서
주 제 목	실종된 공공 질서		
부 제 목	놀지 말아야 될 곳에서 장난치며 놀던 두 어린이 유리창 깨.		
내 가 쓴 기 사 내 용			
<p>지난 1997년 12월 16일 점심 시간인 13시 10분 경 우리반의 고××와 홍×× 두 어린이는 우리 교실 옆의 승강구 복도에서 레슬링 경기를 하며 장난을 치다가 큰 유리창을 깨는 사고를 저질렀다. 다행스럽게도 유리창은 깨어졌으나 다친 사람은 없어서 불행 중에도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 곳은 우리 선생님께서 놀지 말자고 거듭 당부한 장소이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두 어린이는 선생님께서로부터 심하게 꾸중을 들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어디 다친 데는 없니?”라는 따뜻한 물음에 오히려 감격의 눈물만 글썽하고 깨진 유리창을 책임져서 끼워 놓기로 약속하고 마무리 했다.</p> <p>정해진 규칙을 무시하고 이 어린이들처럼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여러분도 질서와 규칙을 어기는 일은 없는지.</p>			
내가 만일 당사자라면	선생님 말씀에 잘 따라서 복도에서 놀지 않고 운동장의 씨름장에서 레슬링 연습을 하였을 텐데		
나의 느낌	규칙을 어기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깨진 유리창도 변상해야 되고 창피도 당하는 것을 ……		
나의 다짐	법과 규칙을 어기면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손해가 돌아온다. 법과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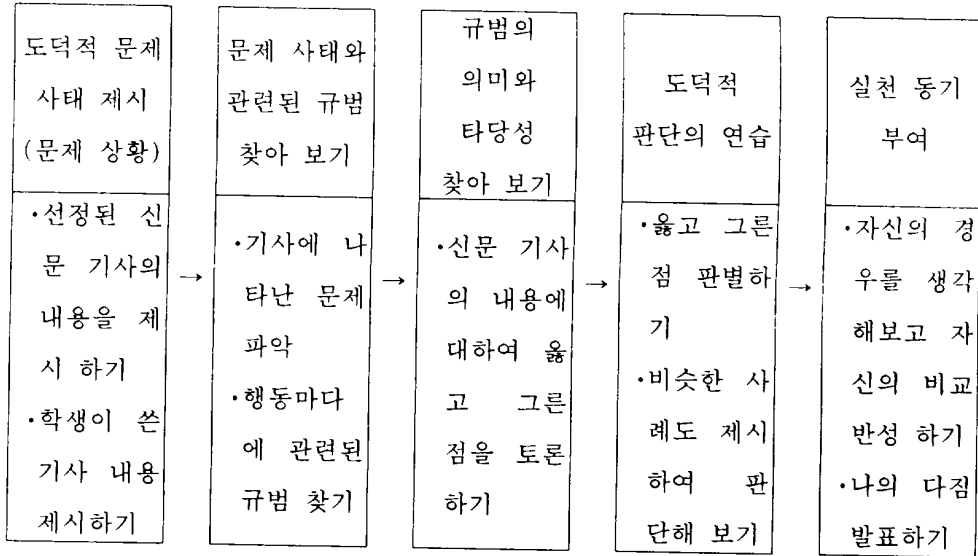
### 3. 道徳科 新聞資料活用 授業의 一般模型

과거의 道徳科 教育의 수업은 道徳科 教科書を 읽은 다음 이야기 줄거리를 발표하게 하거나 指導要素를 中心으로 講義를 하는 식의 국어과와 같은 方式의 수업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학생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과제로 삼아 시종일관 反省訓話式으로 하여 수업 후에 학생들의 생활이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學級會式 授業도 있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수업, 중점적인 指導要素만 칠판에 板書を 해주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수업도 있었다.

이처럼 아무리 학습 지도 기술이 탁월한 교사라 할지라도 아무런 계획없이 도덕 교과서만을 갖고 수업에 임한다면 교과서 내용을 읽고 설명하는 講義式의 수업 진행이 되기 쉬우므로, 한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는 될지 모르나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지도 요소를 학생들의 내면에 정확히 심어주지는 못한다. 설령 수업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막상 수업이 시작되면 많은 학생들을 앞에 두고 그들과 相互作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튀어 나와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심지어는 포기해야 하는 狀況까지도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細細한 부분까지 예상하고 계획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겠지만 最小限으로 學習指導가 主題에서 벗어나지 않고 道徳的 論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적인 흐름을 잡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교사에 의한 도덕적 지식의 一方的인 注入으로서 학생들의 自律的 道徳性은 키워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도덕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價値의 葛藤을 主體的으로 해결하고 感動的으로 도덕적 가치를 自覺할 때 참된 도덕성은 육성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주체성과 內面的 自覺을 지주로 해서 구성된 학습 지도 과정에 의해서 道徳科 授業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되고 일반적 도덕과 교수-학습 지도의 일반적 절차에 따르면서 앞에서 작성된 신문 기사를 자료로 적절히 활용하여 좀더 生動感 있는 도덕과 교수-학습 시간이 되도록 <도 2>와 같이 학습지도 모형을 제시한다.

〈도 2〉 도덕과 신문자료 활용 수업의 일반모형



위에서 제시한 도덕과 수업의 각각의 절차에 따른 신문기사자료활용 수업모형의 단계별 지도요령을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道德的 問題事態 提示

이 단계는 일반적 지도 과정의 導入段階에 해당된다. 그 시간에 학습시키고자 하는 도덕 문제에 대한 학생의 生活經驗을 想起시키면서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단계이다. 이 때 주로 이용되는 것이 교과서의 내용이다. 도덕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도덕적 행동이 나타난 생활 장면들이다. 여기서 지도 요소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제시하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도는 훨씬 높아진다. 학생들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내용이면 더욱 效果的이다. 그리고 제시한 신문 기사의 내용은 학생들이 쉽게 識別할 수 있도록 規範이 드러나 있어야 수업의 흐름이 진지하게 된다. 아울러서 학생의 實態를 잘 파악해야 하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문제를 共通課題로 의식시켜 나가기 위해 교사의 질문이 목표로 하는 방향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問題事態와 관련된 規範 찾아보기

앞서 제시한 도덕적 문제 사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찾아보



는 과정이다. 주어진 狀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最善인지를 決定하려면 그 상황에 나타나 있는 도덕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어진 신문 기사에 나타나 있는 주인공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이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각각 어떤 규범들과 관련되어 있는지 또한 어떤 規範이 더 중요한지를 이 과정에서 밝히는 것이다.

### 3) 規範의 意味와 妥當性 찾아보기

제시된 신문 기사에 나타난 규범의 도덕적 의미를 찾아보는 과정이다. 앞에서 주인공이 취할 수 있는 多樣的 行動 方法 중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묶고, 그것들을 대표하는 規範이나 德目を 부여한다. 그 덕목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가의 타당한 근거를 찾아본다. 즉 중심 가치를 여러 장면에서 評價的으로 파악하게 하여 그 의미의 보편성을 발견하게 한다. 끊임없이 기사 내용과 학생들과의 생활 경험을 결부시키면서 사고 방식이나 행동 방식에 대하여 內省시키도록 한다. 학생 자신의 생각이나 느낀 바를 솔직히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 4) 道德的 判斷의 練習

여기서는 이제까지 배운 도덕적 규범이나 행동 원리들을 새로운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적용해 보도록하여 道德的 思考力과 判斷力을 높이기 위한 단계이다.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信念化하고 있는 규범들을 준수하며 행해지는 행동이다. 그러나 어떤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는 그가 신념화하고 있는 규범을 단순히 遵守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이상의 규범들이 갈등하고 있어서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배운 규범이나 行動 原理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서 스스로 새로운 행동 원리를 만들어내야 하며,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道德的 思考力과 判斷力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sup>53)</sup> 이 때 신문에 나와 있는

53) 교육부(1997), 전제서, p. 40.

여러 가지 신문 기사야말로 여러 가지 경우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사전에 예고된 학습 주제에 맞춰서 학생들 스스로 구해온 다양한 신문 기사를 이용하여 충분한 도덕적 판단의 연습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서 道德的 價値를 놓고 남과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가치를 生活場面에 적용하고 가치의 정착을 도모하게 하는 것도 좋다. 또한 中心價値의 實現이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회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생각하게 하여야 한다.<sup>54)</sup>

#### 5) 實踐動機 賦與

이 단계는 道德的 習慣의 形成을 위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道德的 信念을 實踐하는 과정이다. 도덕적 습관의 형성은 도덕적 행동을 反復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도덕과 수업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또한 空間的으로 교실이라는 곳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특정한 행동을 나타내도록 하기 어려우며, 반복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일은 더욱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실려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하여 間接 經驗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記事 事例를 反省의 機會로 삼아 학생들에게 자기 內面의 결의를 다지게 하고, 가치 실천으로의 의욕을 가지게 한다.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할수록 道德性은 涵養된다.

### 4. 道德科 學習指導의 實際

1) 單元 : 14. 더불어 사는 世上

2) 題材의 解說

(1) 指導 要素의 解說

본 題材의 指導 要素는 “協同”이며, 교육 과정 내용은 ‘共同體 意識과 參與하는

---

54) 이중호(1987), 「도덕과 교육론」, 형설출판사, p. 181.

姿勢'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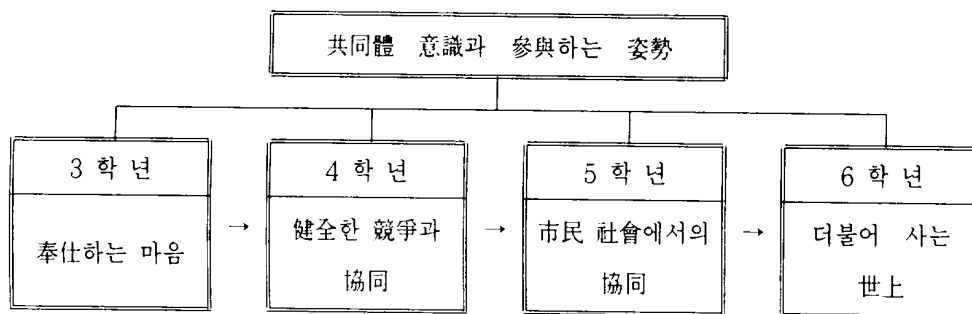
인간은 社會的 動物이다. 사람이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關聯을 맺지 않고 獨立的으로 생활할 수 없다. 家庭이라는 작은 集團에서 出生하여 이웃과 地域 社會, 國家 등과 같이 점차 더 큰 集團으로 擴大된 共同體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인간은 이러한 共同體에 所屬하여 남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物質的, 精神的인 것들을 共有함으로써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新聞의 社會面을 裝飾하고 있는 여러 가지 事件記事들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전혀 없이 오로지 자기 周邊만을 생각해서 빚어진 것들이다. 진정한 共同體 意識은 家族이나 自身이 속한 지역에 대한 盲目的인 執着 關係에 의한 응집 意識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 같은 盲目的 執着은 共同體 意識이 아니라 그것을 해치고 破壞하는 集團的 利己主義인 것이다. 참다운 共同體 意識은 主體的 獨立性을 가진 個人이 理性에 의해서 連結되어 協同함으로써 共同善을 創造하는 崇高한 精神인 것이다.

본 제재는 인간의 社會性을 理解하여 자신의 存在를 社會 속에서 意識하도록 하고, 건전한 共同體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가 讓步하고 協同하려는 姿勢가 必要함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態度를 形成하도록 하는 데에 지도의 重點을 두고 있다.

(2) 指導 要素의 系列

본 제재의 教育課程 내용인 '共同體 意識과 參與하는 姿勢'는 <圖 3>과 같은 系統으로 指導가 이루어지고 있다.

<圖 3> '共同體 意識과 參與하는 姿勢' 指導 系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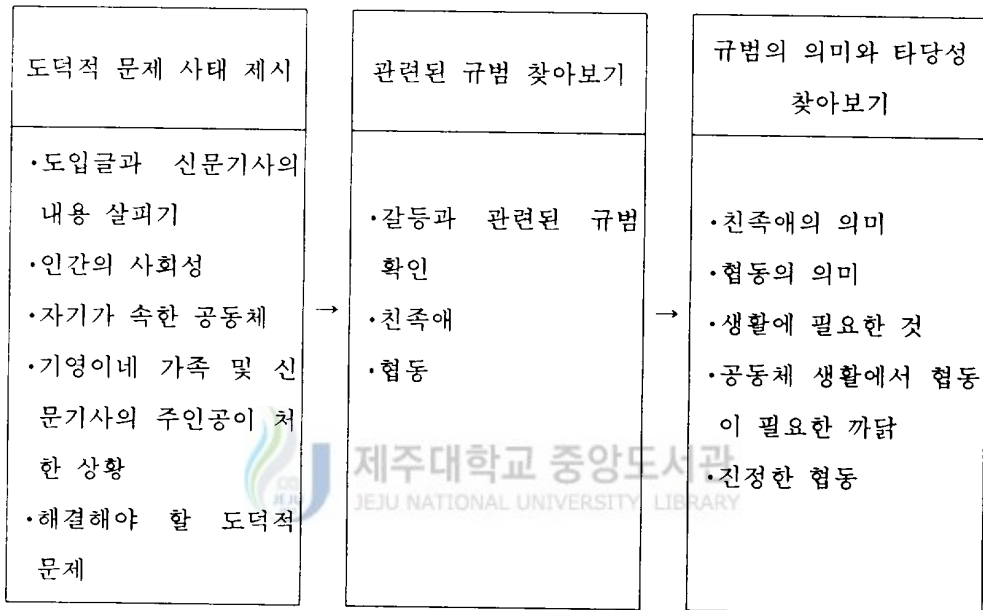
### 3) 單元의 目標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理解하고, 共同體의 일에 參與하는 姿勢를 갖는다.

### 4) 차시별 수업 흐름

본 단원은 총 2차시로 지도하게 되었는데 차시별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1) 1차시 수업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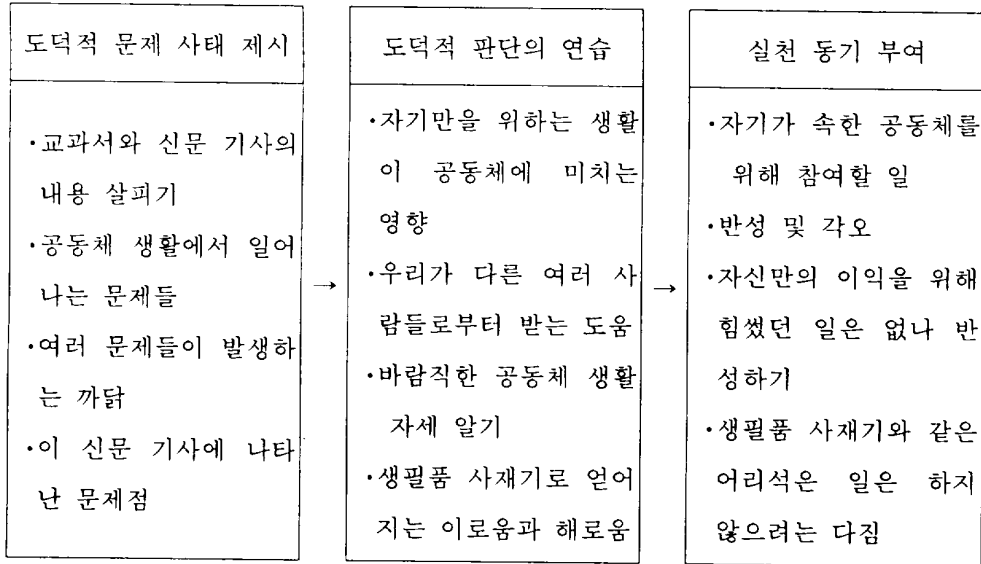


#### < 학습 문제 >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 기영이네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 기영이네 자동차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 공동체 생활에서 협동이 필요한 까닭은 어디에 있나?
-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

- 주어진 기사에 나타난 도덕적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
- 신문 기사의 주인공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동은 없었을까요?
- 기사 내용에서 옳고 그른 점을 말해보자.

(2) 2차시 수업 흐름



<학습 문제>



-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 이 신문 기사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 공동체 생활에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 생필품 사재기를 했을 때 얻어지는 이로움과 해로움은 각각 무엇인가?
- 사람들이 모두 자기나 자기 가족들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의 자세를 말해 봅시다.
-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참여할 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5) 본시 교수-학습안

제 재	14. 더불어 사는 세상	차시	2/2	교과서	154~159
본시주제	함께 참여하는 생활. 실제로 해봅시다.		지도 요소	협 동	
교수-학습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와 내가족만을 위한 행동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안다.</li> <li>·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려는 자세를 갖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일에 적극 참여한다.</li> </ul>				
신문자료제목	텃빈 진열대 낮 뜨거운 이기심만 (IMF시대 이것만은 고치자)				
학습 단계	중심요소	성취 과정별 주요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와 유의점
		교 사 활 동	학 생 활 동		
도덕 적 문제 사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이 다음과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발표해 보자.</li> <li>·나 혼자만 살아간다면 어떨까?</li> <li>·우리 가족만 살아간다면?</li> <li>·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각 처한 상황에 대하여 다양하게 생각하고 보고 발표하기</li> <li>·옳고 그른 정답이 없는 만큼 되도록 많은 생각들을 발표한다.</li> <li>·혼자서는 살아가기가 곤란하다.</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답이 없으므로 남의 의견에 대하여 비판을 하지 않도록 한다.</li> <li>·OHP</li> <li>·교사가 사전에 선정한 신문 기사 자료를 TP자료화하여 OHP로 보여 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기사 자료를 OHP로 보여 주고 나타난 문제점을 조별로 토의해 발표하도록 한다.</li> <li>·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 기사의 내용과 신문 기사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조별 토의과정을 거쳐 요약하여 발표하기</li> <li>·교과서를 읽고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발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삼촌이 화를 낸 까닭은 무엇인가?</li> <li>·마을 사람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잘 지키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li> <li>·외삼촌은 그외에 도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일들로 어떤 것들을 지적하였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쓰레기 종량제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li> <li>·자기들만 예외로 생각하고 공동체의 일은 무관심해서</li> <li>·시골에 와서 놀다다며 길거리, 논밭 등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상시 보고 들은 내용을 생각하여 부담감없이 발표하도록 유도한다.</li> </ul>
도덕적 판단의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 생활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까닭</li> <li>·자기만을 위한 생활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 생활에서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까닭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한다.</li> <li>·교과서와 신문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인가?</li> <li>·사람들이 신문이나 교과서에 나타난 것처럼 모두 자기나 자기 가족들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논의해 보도록 한다.</li> <li>·모든 사람들이 자기나 자기 가족의 이익만 생각하고 행동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별로 논의해 보고 핵심적인 내용만 발표하기</li> <li>·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좁은 생각</li> <li>·공동체의식과 협동하는 마음이 부족해</li> <li>·신문 자료와 교과서에 나타난 상황을 잘 생각하고 또한 평소에 생활 하면서 주변에서 겪었던 경험을 되살리며 활발한 논의를 해 보기</li> <li>·시기와 질투가 많고, 인정이 없어지며 서로 다툼이 잦게 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원 전체가 골고루 의견을 제시하여 우수학생 위주의 논의 과정이 되지 않도록 순시하며 지도한다.</li> </ul>

	<p>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은 어떻게 되겠나?</li> </ul> <p>◦다른 사람들로 부터 받는 도움</p> <p>◦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매일 먹는 '밥'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li> <li>•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li> <li>◦공동체 속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한다.</li> </ul>	<p>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국엔 피해를 입게 되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li> <li>◦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수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음을 상기하며 발표하기</li> <li>•농부가 농촌에서 벼를 생산함→정미소 사람이 벼를 찧어 쌀로 만듦→상인들의 손을 거침→가게→우리 집에서 엄마가 밥을 지음</li> <li>•감사하는 마음</li> <li>•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 주려는 마음</li> <li>◦공동체 생활에서의 바람직한 생활 태도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고 논의하기</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분은 이웃 어른들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나요?</li> <li>•바람직한 공동체 생활 자세는 무엇인가?</li> <li>•여러 가지 신문자료들을 이용하여 상황에 맞게 가치판단을 해보도록 한다.</li> <li>•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도록 한다.</li> <li>•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참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li> <li>•지금까지의 자신의 공동체 생활 태도를 반성해 보고 앞으로의 각오를 발표해보도록 한다.</li> <li>•우리들의 생활태도는 어떠했는지 발표해볼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한다.</li> <li>•속스러워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li> <li>•양보하는 마음과 남의 입장 이해하기</li> <li>•사전 준비한 신문기사와 탐구과제를 보며 옳고 그름과 각오를 발표하기</li> <li>•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및 학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발표하기</li> <li>•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 어려운 친구 돕기, 휴지 안버리기</li> <li>•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보고, 자신의 각오를 발표하기</li> <li>•다양한 경험을 솔직하게 발표하면서 남과 비교도 해보고 반성도 한다.</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탐구 과제</li> <li>◦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보고 자신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도록 유의한다.</li> </ul>
--	--	--	--	----	---

## 6) 신문 자료 내용

(1) 제목 : 텅빈 진열대 낯뜨거운 이기심만...55)

- IMF시대 이것만은 고치자 -

분당 신도시에 사는 주부 정모씨는 지난 금요일 오후 E마트 분당점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라면 몇 개와 설탕 한 봉지를 사러 갔는데 웬걸, 물건이 없는게 아닌가. 이 시간이면 덜 봄볕던 어느 평일과 달리 계산대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지하 매장의 설탕·라면·밀가루·식용유·화장지 등 생필품 코너는 텅 비어 있었다. 정씨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 '안 되겠구나' 싶어 가진 돈 모두 긁어 필요한 것을 샀다."고 말했다. 다른 일부 할인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프라이스 클럽 양평점은 이날 문을 연지 2시간 만에 생필품 등이 동났고, 까르푸 중동점도 물건을 풀자마자 모두 팔려나갔다. 부도로 현금만을 쥐야만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김스클럽의 경우 평촌점 등에서는 물건이 없어 지난 9일부터 커피·설탕·식용유 등은 판매를 중단했다.

환율 상승·원자재 확보난 등으로 물가가 오를 기미를 보이자 일부에서 고질적인 '사재기'가 되살아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장롱속 달러 내놓기·금반지 모으기 등 국채 보상운동에 가까운 의지를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그저 '나만 살자'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그래도 괜찮게 산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더 심하다. 일부 소매상의 사재기와 공급업자의 장난도 한몫 하겠지만, 그 결과 일부 대형할인점의 생필품 매출이 2~3배나 경총 뛰었다. E마트 분당점은 지난달과 비교할 때 최근 하루 평균 매출이 설탕 236%, 밀가루 166%, 라면 111%, 화장지는 121%나 늘었다. E마트 관계자는 "그래도 물건이 달려 13일부터 설탕 1부대, 라면 1박스, 휴지 1묶음 등으로제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스클럽 평촌점 김성규씨는 "음식점이나 소형 슈퍼마켓 등에서 생필품을 왕창 사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자제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부 조애란씨는 "서민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몇 개 사거나 박스로 사서 나누는 것까지 타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사재기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있는 사

---

55) 중앙일보, "IMF시대 이것만은 고치자", 1997년 12월 1일, p. 26.

람'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시민의 모임 김재욱 사무총장은 "사재기 해봐야 실제 이익은 크지 않으면서도 사회혼란과 물가부추기기 심리를 가중시키게 되므로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 V. 結 論

도덕과의 學習指導는 어떻게 하면 道德的 價値에 關係해서 學生들에게 主體的으로 自覺하게 하고 道德的 思考力 내지 判斷力을 伸張시키느냐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學生들이 主體的인 自己主導的 學習을 통해서 道德性이 풍부하게 키워질 수 있도록 學生들의 實態 및 發達狀況에 입각해서 敎재를 어떻게 提示하고 어떤 方法으로 指導하느냐가 重要하다. 道德的 價値判斷力의 伸張을 위함과 동시에 요즘들어 무척 중요시되고 있는 열린 敎育 趣旨에도 맞추면서 新聞을 學習資料化하여 敎재로 제시하고 敎育的으로 活用하는 것은 入試爲主의 敎育과 학습자보다는 지도敎사의 편의를 위해 敎사주도의 注入式·講義式이 주를 이루어 온 과거의 道德 敎育에 대한 한 가지 代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新聞을 學習敎材化하여 도덕과 敎育에 활용하면 道德的 價値判斷力을 신장시키는데 動機誘發 資料로 效果의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初等學校 6학년을 중심으로 道德的 價値判斷力을 伸張시키기 위하여 新聞記事를 敎育資料로 活用하는 具體的인 방안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提示한 내용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初等學校 六學年 道德科 敎育課程을 分析하였다. 6학년 도덕과에서 單元別로 다루어야 할 個人생활, 가정생활, 이웃 및 학교생활, 社會생활, 國家 및 민족생활의 각 영역별 指導要素에 따라 學習動機誘發에 適切한 新聞기사의 내용을 選定하여 提示하였다.

둘째, 單元別로 선정된 新聞의 기사자료가 도덕과 敎수-학습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學習資料로 活用될 수 있도록 敎材化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도덕과 敎수-학습시간에 新聞을 활용한다고 막연히 新聞만 내놓으면 新聞을 뒤적이다 시간이 전부 지나가버리고 만다. 특히 제6차 敎育과정부터는 도덕과 時間配當도 주당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敎수-학습시간에 新聞을 이용한다고 新聞을 뒤적이며 헛되이 1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다. 짧은 시간에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新聞을 학습에 投入할 수 있도록 敎材化 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전에 新聞을 이용하여 敎재화하는 시간으로는 아침

자율학습시간 등 餘裕時間을 이용하면 좋다. 이 시간에 教材化를 위한 資料選定基準과 教材化 過程에 따라 新聞探究 課題를 해결하도록 하고 또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新聞記事를 直接 作成해보게 하여 그 자료를 가지고 도덕과 교수-학습시간에 道德的 問題事態 提示 段階에서 學習動機誘發을 위한 資料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도덕과 교수-학습지도의 일반적 흐름에 따라 신문기사 자료를 활용하여 論議中心의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發問要領도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논의 활동이 이루어져서, 어떠한 葛藤狀況에서도 主體的으로 解決하고 스스로 價値를 自覺하도록 하였다.

넷째, 論議中心의 學習이 되도록 학생들의 發表要領을 例示하였다. 基本學習 訓練이 잘 되어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덕과 학습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狀況에 알맞게 학생들이 발표하는 요령을 예로 들었다. 특히 도덕과에서는 활발한 論議中心의 학습이 필요하다. 도덕적 가치판단력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多樣的 意見交換을 거치는 과정에서 더욱 키워지므로 활발한 논의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發表力을 伸張시킬 수 있도록 발표하는 요령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新聞資料를 실제로 학습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教授-學習指導案을 具案하였다.

實際로 研究者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대로 學習指導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첫째, 신문의 기사를 學習教材化하여 도덕과 教授-學習에 활용하는 教育活動은 교과서 및 생활의 길잡이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보다 學習動機誘發이 잘 되어 많은 學生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도덕과 공부에 임하였다.<sup>56)</sup>

둘째, 학교에서의 자투리 時間을 活用하여 新聞利用 工夫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

56) 연구자가 담임했던 학급 40명 학생에 대하여 '신문을 활용한 도덕과 공부시간이 재미있습니까?'라는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①이전보다 재미없다. 2.5% ②귀찮기만 하다. 5.0% ③그리 그렇다. 15.0% ④훨씬 재미있다. 77.5%로 나타남.

에 一般的인 主知教科 爲主의 自律學習을 强要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呼應度가 높았고, 요즘 특히 열린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自己主導的 學習能力의 伸張에도 도움이 되었다.

셋째, 신문에서 필요한 것을 찾고, 學習에 利用할 수 있도록 教材化하는 過程이 주로 組別活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결과 組원들간의 親密感이 더욱 좋아짐을 알 수 있었고, 자신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생활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협동심도 길러졌다.

넷째, 활발한 論議活動을 강조하여 學習指導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發表力이 신장되었다. 발표에 消極적이던 학생들도 參與態度가 좋아졌고 특히 論理的으로 理由나 根據를 밝히면서 발표하는 能力이 向上되었다.

다섯째, 과거보다 요즘의 학생들처럼 靜的인 것보다는 動的인 것을 좋아하는 상황에서는 학습지도의 방법도 한 가지를 지속하기 보다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문자료를 활용하는 학습은 학습자의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소기의 학습목표를 도달할 수 있었다.

綜合적으로, 신문에는 世界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과 갖가지의 事件事故 消息 및 아름다운 美談記事가 記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多樣한 情報들도 실려 있다.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데 신문을 활용하게 되면 삶의 多樣性을 體得하게 되는 셈이다. 다양한 價値體驗을 통하여 길러진 道德的 價値判斷力은 도덕과가 바라는 道德性的 涵養을 위해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이를 위해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신문을 보고 도덕과 학습에 必要한 學習教材를 만들도록 하여, 이를 활용하여 教授-學習을 進行하면 效果的이다. 특히 요즘처럼 열린 교육이 強調되고 있는 시점에서 NIE는 도덕과에서 더욱 알맞은 교수-학습방법의 代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추진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을 道德科 教育에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逆機能的인 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感受性이 銳敏한 어린 학생들은 신문에 報道되고 있는 각종의 악랄하고 비도덕적인 사건사고 소식을 模倣하여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항상 教育的인 關心과 지도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判

斷을 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자칫하면 신문을 교육에 활용하는 자체가 興味爲主로 흘러서 본연의 學習目標와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가버릴 염려도 있다.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한 과제보다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인기연예인들이 나오는 오락부분의 기사에만 더 관심을 기울일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明確하게 목표를 주어 主客이 顛倒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道德的 價値判斷力이란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價値葛藤事態에서 어떤 가치를 盲目的으로 追從하고 信奉하여 選擇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학생 스스로가 發見하고 이를 分析·適用·綜合하여 合理的으로 選擇하고 判斷할 수 있는 能力인 것이다. 도덕적 가치판단력은 價値注入이나 傳達보다는 價値探究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기 때문에 교사는 論議過程을 충분히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교육 활동이 그렇지만, 특히 道德的 價値判斷力을 키워주는 일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計劃的이고 持續的이며 熱誠的인 지도가 있을 때,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바람직한 道德的 行動의 바탕이 되는 道德的 價値判斷力의 伸張을 위해 多樣하고 效果的인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단행본〉

- 고범서(1993), 「가치관 연구」, 나남.
-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도덕 6」, 한국교육개발원.
- 김수철(1987), 「현대인을 위한 도덕과 윤리」, 교문사.
- 김지용(1996), 「현장신문론」, 도서출판 쟁기.
- 김태길외(1983), 「국민윤리」,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도덕·윤리 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1989), 「함께하는 도덕교육」, 도서출판 푸른나무.
- 라병술(1986), 「심리학 개론」, 형설출판사.
- 문용린(1996), 「도덕윤리 교육의 문제와 개선방향」, 「한국사회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진단과 처방」, 아산 사회복지 사업재단.
- 박선목(1994), 「윤리학과 현대사회」, 학문사.
- 박유봉외(1994), 「신문학 이론」, 박영사.
- 송 자(1996), 「신문 읽는 법」, 삼성언론재단.
- 심진구(1988), 「교수 공학」, 교학연구사.
- 유정복(1995), 「윤리와 사회」, 형설출판사.
- 이상우·류창하(1992), 「현대신문 제작론」, 도서출판 나남.
- 이영덕(1974), 「교수공학 이론」, 교육출판사.
- 이정균(1995), 「신문으로 공부하자」, 도서출판 민.
- 이종호(1987), 「도덕과 교육론」, 형설출판사.
- 임준수(1995), 「신문은 편집이다」, 도서출판 나남.
- 정세구(1991), 「가치이론과 가치교육」, 교육출판사.
- (1990),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윤리」, 교육과학사.
- 제주도교육청(1998), 「창의적인 열린교육활동」, 태명인쇄사.
- 조무남(1996), 「현대사회와 가치판단의 논리」, 「현대사회와 가치」, 두레시대.
- 조성민·정선심(1993), 「논리와 가치탐구」, 철학과 현실사.



- 차배근(1987),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下」, 세영사.
- 최정호외(1992), 「매스미디어와 사회」, 도서출판 나남.
- 한국교육출판(1998), 「NIE 열린수업」, 영진문화사.
- 허병두(1997), 「신문활용 교육이란 무엇인가」, 중앙M&B.
- 황경식(1996), 「한국사회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진단과 처방」, 정문출판(주).

<번역본>

- Jack R.Fraenkel, 「가치탐구 수업을 어떻게 할것인가?」, 송용의 역(1986), 교육과학사.
- J.Heseen, 「가치론」, 진교훈 역(1992), 서광사.

<논문>

- 김성수(1996), "신문교재화 중심의 가치탐구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 자질 함양", 현장교육 연구보고서.
- 김윤현(1997), "초등학교 아동들의 가치관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향운(1997), "도덕·윤리과 교수-학습에서 신문의 활용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마시열(1994), "합리적 가치판단능력 신장을 위한 초등도덕과 수업모형의 구안",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민영방(1992), "자료의 수집·해석 기능이 사회적 지식획득 및 가치명료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재덕(1996), "사회과 정치교육을 위한 신문활용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태환(1997), "신문자료 활용을 통한 가치탐구 수업이 도덕판단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송재홍(1995), "가치갈등 수업을 통한 국민학생의 도덕적 판단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석

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영기(1992), "시사자료의 논의학습 적용이 도덕적 가치판단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현장교육연구보고서.

〈기타 신문 및 간행물〉

교육학사전 편찬위원회(1975), 「교육학 대사전」, 교육과학사.

박영기(1992), "가치갈등교재 개발을 통한 도덕적 판단력 신장", 「도덕·국민윤리와 교  
육」, 제3호, 한국도덕·국민윤리와 교육학회.

박영숙(1985), "가치갈등 모의법 자료 활용을 통한 가치판단력 신장", 「연구논문집」,  
제44집,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박익중(1991), "도덕적 가치판단력 신자의 교육", 「교육전남」, 제79호, 전라남도교육청.

백무흠(1988),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도덕적 가치판단력 신장", 「부산교육」, 제246호,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안병훈(1994), "신문을 학교교육에 활용하자", 「교육월보」, 6월호.

양선석(1996), "언론매체의 기사를 활용한 가치관 교육", 「도덕·윤리와 교육」, 제7호,  
한국도덕·윤리와 교육학회.

임철순, "민주시민 교육을", 「한국교육신문」, 1998. 1. 1.

조성철(1995), "신문은 살아있는 교과서", 「한국교육신문」, 1995. 4. 12.

중앙일보, "IMF시대 이것만은 고치자", 1997. 12. 1.

최선열(1995), "미국의 NIE", 「신문과 방송」, 제290호,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신문협회(1993), 「신문과 교육」, 한국신문협회.

한장수(1995), "신문을 수업자료로 이용하는 NIE", 「강원교육」, 제150호, 강원도교육청.

황치성(1994), "일간신문의 청소년에 관한 보도경향", 한국언론연구원, 「청소년과 인쇄매  
체 연구서 25」, 대륙문화사.

홍원기(1993), "NIE 도입을 위한 제언", 「신문과 방송」, 제274호, 한국언론연구원.

---

〈Abstract〉

A Study on how to use newspapers in moral  
education to develop morality\*

---Focusing on 6th graders at elementary schools---

Kim, Kwang-Rae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Bang-Joo

The ultimate aim of moral education is to develop morality and to cultivate moral sensitivity which will lead our pupils to live their social lives easily while getting along with others.

Therefore, through this thesis I will suggest how to use newspaper articles in moral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teaching Ethics more effectively in accordance with today's active open classes. This teaching method will help the children (1) to actively learn what is right or wrong, and to think more critically and act morally at all times (2) to realize what their personal moral values are and lead their moral lives.

First of all, by making a thorough examination of great authors' works on Newspaper in Education(NIE) and how it is related to the importance of value judgment, I have checked whether NIE is a right method for teaching Ethics in an elementary school. Next, I have analyzed the 6th grade curriculum for Ethics at elementary schools, selectiing teaching point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8.

---

according to both 'units' and 'parts'. These points will direct the pupils' thoughts and effort in the selection of necessary articles in order that they can choose articles appropriate for moral education classes by themselves and with ease. Whenever we as teachers can find time to spare, we can put together the chosen articles according to the classifying standards and the given course. Therefore, we can use them as teaching materials to draw students' attention in the beginning steps, along which some problematic topics are presented as well as for materials for discussion in the developing steps of the class. In addition, I will illustrate what questions to ask as a teacher and how to provide answers in order to make the class active. Finally I will actually design a NIE teaching plan to use as an example.

By joining me when they are free before the beginning of class every morning, the students have shown their interest in working with me to make these materials more useful for NIE classes. Moreover, with this as a turning point, they have become more interested in the subject of Ethics and have been able to study by themselves, which is encouraged under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these days, as well as their active discussions in class which lead them to express their opinions clearly.

By the way, we should always take good care to teach children to think and act morally who have difficulty telling good from bad. These children are apt to imitate other people's bad conduct or crime reported in the daily paper and they are easily absorbed in such sections as entertainment (TV/Movies), sports, which both are against our above intention.